

문학석사 학위논문

# 후설의 순수 논리학 연구

- 『서설』에 나타난 순수 논리학의 의의와 한계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김 한 샘

# 후설의 순수 논리학 연구

- 『서설』에 나타난 순수 논리학의 의의와 한계 -

지도교수 이 남 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김 한 샘

김한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후설은 『논리연구』의 1 권인 『서설』에서 심리학주의에 기초한 논리학을 비판한다. 심리학주의에 기초한 논리학은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논리학은 그 본성상 논리학이라는 학문으로서 올바르게 성립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논리학은 인간의 사유가 따라야 하는 올바른 법칙을 다루는 규범적인 학문으로 간주되었다. 학문이 인간 사유의 집적체라면, 학문들을 이루는 사유들도 논리적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학문을 이루고 있는 사유가 논리적 합법칙성을 벗어난다면, 그러한 학문은 학문의 본성상 더 이상 학문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의 규범적 법칙을 다루는 학문인 논리학의 토대가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다른 여타의 학문들의 토대도 확보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후설은 논리학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해명은 학문이 학문으로서 성립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파악했다.

그렇다면 논리학의 규범성 자체는 어디에서 그 근거를 얻는가? 후설은 모든 규범적인 것은 선행하는 이론적인 것에 근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를 논리학에 적용한다면, 논리학의 규범성은 형식적이고 연역적인 논리학의 이론적 성격에 그 근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학의 규범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연역적인 논리학의 이론적 성격이 먼저 해명되어야만 한다. 후설은 경험에 독립적인 순수 이념적 대상의 논리적 구조를 다루는 이론적인 논리학을 ‘순수 논리학’이라고 칭한다.

순수 논리학이 다루는 대상들은 시공간에서 현존하는 실재적 대상이 아닌 논리적 대상이라는 이념적 대상이며, 이념적 대상들 사이에서 도출

된 논리적 타당성은 모든 실재적 대상들에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 실재적 대상들 사이의 관계는 이념적 대상들의 관계에서 도출된 논리법칙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례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순수 논리학은 자신이 탐구하는 대상들이 지니는 논리적인 법칙의 보편타당성을 근거로 대상 일반에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보편성은 순수 논리학이 학문론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근거이다.

어떤 대상의 파악은 그것이 실재하든 실재하지 않든 간에 논리적 타당성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앎이란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비롯하며, 대상들 사이의 관계가 논리적 타당성을 위배한다면 애초에 앎으로서 성립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리학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학문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다루고 있는 논리적 대상들에서 도출된 논리적 타당성을 일종의 사유의 규범으로서 다른 여타의 학문들에 제공하는 기초학문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기초학문으로서의 순수 논리학은 다른 여타의 학문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하는 바, 후설은 이를 학문론(Wissenschaftslehre)이라 부른다.

우리는 순수 논리학이라는 개념이 『서설』 이후 전개된 초월론적 현상학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철저한 인식론적 해명을 요구하는 학문인 초월론적 현상학이 여타의 학문에 궁극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순수 논리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후설은 이미 『논리연구』의 2권에서 “인식론은 논리학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밝혀지듯, 후설에게 인식의 최종적인 권리원천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직관인 바, 우리는 이 직관보다 더 확실한 권리를 지닌 인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현상학적 환원의 인식론적 철저성은 어떠한 전제도 요구하지 않는 학문으로서의 현상학의 지위가 여타의 학문과

는 다름을 보여준다.

다시 순수 논리학의 문제로 돌아가자. 두 기초적 학문인 순수 논리학과 초월론적 현상학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 하는가?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해명을 요구한다. 순수 논리학이 여타의 학문들의 규범성의 근거가 되는 학문이라면 초월론적 현상학도 순수 논리학에서 탐구하는 사유의 규범을 따르는 학문인가? 아니면, 반대로 순수 논리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의 인식론적 철저성에 자신의 성립 근거를 요청하는 학문인가?

『이념들 I』에서 후설은 ‘특정한 전제’가 주어진다면 순수 논리학을 순수 의식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순수 의식을 하나의 대상으로 다루는 한에서 순수 의식 자체는 대상 일반에 포함되며, 따라서 대상 일반을 다루는 학문인 형식 논리학과 형식적 존재론의 합법칙성은 원칙적으로는 순수 의식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후설은 특정한 전제가 주어진다면 형식적인 논리학과 형식적 수학 일반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후설은 순수 의식에 대한 탐구가 순수 직관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deskriptiv) 분석 이외에 어떤 임무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현상학은 순수 직관 속에서 순수 기술적으로 초월론적 순수 의식의 장을 탐구하는 학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수학적 연역적 학문은 탐구의 도구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순수 의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때, 형상적 학문으로서의 연역적 논리학은 순수 의식에서 배제될 수 있다.

『서설』에서 제시된 순수 논리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에서는 더 이상 규범학이자 보편학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하지만 순수 논리학은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념들 I』의 형식적 존재론과 순수 다양체론은 순수 논리학의 구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에게 더 보편적인 본질학이 자신의

정초 토대를 반성할 수 있는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현상학임은 명백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순수 논리학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통해서, 후설 철학에서의 인식론적 권리의 우선성이, 순수 논리적 학문의 보편적 규범성에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후설이 새로운 기초학문의 성격을 초월론적 현상학에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재확인된다.

**주제어:** 후설, 논리연구, 순수 논리학, 기초 학문, 학문론, 초월론적 현상학

# 목 차

I. 서론 .....	1
1.1. 논문의 연구 대상과 목표 .....	1
1.2. 문제의 배경 .....	5
1.3.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	8
1.4. 논문 진행의 개요 .....	9
II. 순수 논리학 성립의 주요 동기 .....	11
2.1. 논리학의 개혁으로서의 순수 논리학 .....	13
2.1.1. 수학기초론 논쟁 .....	13
2.1.2. 수학기초론 논쟁에서의 후설의 초기 입장:	
(1) 『산수의 철학』에서의 심리학주의적 수 파악 .....	18
(2) 심리학주의적 수 파악의 문제점 .....	23
2.2. 순수 논리학에 대한 예비적 논의 .....	25
2.2.1. 논리학의 본성에 관한 『서설』의 입장 .....	27
2.3. 소결론 .....	30
III. 학문론으로서의 순수 논리학 .....	32
3.1. 후설 철학에서 드러나는 중심 주제로서의 학문의 해명 ..	32
3.2. 학문에 관한 후설의 입장 .....	35
3.2.1. 개별 학문의 불완전성 .....	35
3.2.2. 객관적 학문의 인식근거 .....	38
3.3. 학문론의 필요성 .....	42
3.4. 소결론 .....	44

IV. 초월론적 현상학과 순수 논리학 .....	46
4.1. 학문이론에 앞서는 인식론적 해명의 우선성 .....	48
4.1.1. 『현상학의 이념』에서 제시된 인식론적 해명의 우선성 ·	49
4.1.2. 제일철학으로서의 보편학의 이념 .....	50
4.2.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의 이념 .....	53
4.3. 초월론적 현상학과 순수 논리학 .....	55
4.4. 소결론 .....	58
V. 결론 .....	60
참고문헌 .....	64
Abstract .....	74



# I. 서론

## 1.1. 논문의 연구 대상과 목표

이 논문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일차적 관심사는 『논리연구 1권: 순수 논리학 서설』<sup>1)</sup>(이하 『서설』)에 등장하는 ‘순수 논리학’ 개념이다. 『서설』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서설』에 등장하는 순수 논리학은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온 개념은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서설』에 대한 연구의 상당수가 후설의 반심리학주의 논증에 집중되어왔다는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sup>2)</sup> 물론 『서설』의 심리학주의 반박은 그 자체로 철학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술의 표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핵심개념인 ‘순수 논리학’ 자체에 대한 해명은 충분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설』의 연구에 있어서 더 본질적인 작업은 순수 논리학에 대한 해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실은 『서설』에 제시된 후설의 반심리학주의가 후설 이전에 프레게가 제시한 반심리학주의와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후설의 반심리학주의가 프레게의 것과 내용상 거의 동일한 것이라면, 후설의 반심리학주의가 그 자체

---

1) E. Husserl, *Logische Untersuchungen Erster Teil: Prolegomena zur reinen Logik*, Halle a. S., Max Niemeyer, 1900. *Logische Untersuchungen Erster Band: Prolegomena zur reinen Logik*,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75. (Husserliana XVIII, 『논리연구 1권: 순수 논리학 서설』 이하 『서설』로 약칭) 본 연구에서 『서설』의 인용 페이지는 후설 전집(Husserliana, 이하 Hua로 약칭) 18권을(Hua XVIII) 기준으로 한다.

2) 『서설』의 반심리학주의를 주제로 삼는 주요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Robert Hanna, “Logical Cognition: Husserl’s Prolegomena and the Truth in Psychologism”,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53, no. 2, 1993.

로 철학적으로 높게 평가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sup>3)</sup>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후설의 반심리학주의의 철학적 의의를 프레게의 반심리학주의와 비교하며 옹호하고 있는데, 이들의 논의는 대체로 후설이 『서설』에서 제시한 반심리학주의가 프레게의 선행하는 작업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후설의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것인지를 논의하는데 치중한다.<sup>4)</sup> 하지만 후설이 독자적으로 반심리학주의적 입장을 발전시켰다는 일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후

---

3) 후설과 프레게의 반심리학주의 논증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평가는 많은 학자들이 공유하는 평가이다. 예를 들어 더밋은 후설의 심리학주의 반박이 독일 철학 내에서 심리학주의의 영향을 거의 사멸시켰다고 평가하지만, 후설의 반심리학주의 논증이 프레게의 것에 비해서 좀 더 상세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후설 철학과 프레게 철학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도 후설이 프레게의 영향을 받아서 반심리학주의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아니면 후설이 독립적으로 반심리학주의로 입장을 선회했는지를 두고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후설과 프레게의 반심리학주의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입장이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4번 각주를 참고할 것. M. Dummett, “Preface” in *The Shorter Logical Investigations*, 2003, p. xxi.

4) 후설 철학과 프레게 철학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분류할 수 있다.

a. 후설과 프레게 생전의 직접적 교류에 대한 연구: 후설은 『산수의 철학』에서 프레게의 외연으로서의 수 이론을 비판하였고, 프레게는 『산수의 철학』에 대한 서평에서 후설의 수 이론을 비판한다. 이를 계기로 이 둘 사이에는 몇 번의 서신 교환이 있었는데, 그 중 중요한 서신은 프레게가 1891년에 후설에게 보낸 서신이다. “Letter to Husserl, 24.5.1891” in *The Frege Reader*, pp. 149-150.

b. 후설의 입장이 반심리학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의 대한 연구. 이 연구는 펠레스달의 논문으로부터 촉발 되었는데, 펠레스달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후설이 『산수의 철학』에서의 심리학주의적 입장을 버리고 반심리학주의로의 전환한 데에는 프레게의 비판이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펠레스달의 입장에 대한 반론은 모헌티에 의해서 최초로 제기 되었고, 근래에는 아드독, 힐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들은 후설이 반심리학주의로 입장을 바꾼 근본적인 이유는 프레게의 비판이 아니라 후설 고유의 철학적 입장 변화 때문이며, 따라서 후설의 반심리학주의는 프레게의 것과는 독립적인 후설의 독자적인 철학적 업적이라고 주장한다. Mohanty(1982), Haaparanta(ed.)(1994), Hill & Haddock(2000), Hill(2001)

c. 논리학에 대한 후설의 입장과 프레게의 입장을 그 자체로 비교하는 연구. 이에 대해서는 *Husserl or Frege?*에 수록된 논문 및 후설 논리학을 특집으로 다룬 학술지 *Axiomathes* 특별판 “The Other Husserl” (Vol.22 Issue 1)에 수록된 논문들을 참고 할 것.

설의 반심리학주의가 프레게의 것보다 더 철학적으로 가치 있다고 주장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그러한 주장은 후설도 프레게 못지않은 반심리학주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반심리학주의 자체의 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설의 반심리학주의가 왜 『서설』에서 제시되어야 했는가라는 문제이다.

『서설』의 심리학주의 비판은 기초적 학문인 논리학의 토대가 심리학이라는 경험과학에 의해서 정초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연역적인 논리학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이때 후설이 심리학에 기초한 논리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주의에 기반한 논리학도 물론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이 논리학은 필연적으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논리학은 다른 여타의 학문들에 대해서 기초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서설』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심리학주의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학문으로서 성립하게 하는 기초적 학문은 어떤 학문이 되어야 하는가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즉 학문은 언제 학문이 되며, 학문을 학문으로서 성립하게 하는 학문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서설』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서설』에서 제시된 철학적 개념이 바로 순수 논리학이다.

후설과 프레게의 철학이 반심리학주의를 공유하면서도 이후 상이한 발전과정을 밟게 되는 이유는 후설 철학의 핵심적인 목표로서 모든 학문의 존립근거를 제시하는 제일철학을 정립하고자하는 시도가 『서설』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제일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개념상 확고하게 경계지어졌으며, 충분히 의의가 밝혀진 문제들, 방법 및 이론”<sup>5)</sup>을 갖춘 엄밀학이라는 전통적인 철학의 이념으로 철

학이 복귀해야한다는 요청이었다. 학문의 존립근거를 그 인식론적 해명을 통해서 정초하고자 했던 후설 철학의 근본 동기는, 언어의 분석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언어적 표현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하고자한 프레게의 논리주의적 의도와는 구분될 뿐만 아니라, 이후의 후설 철학에서 시작하는 현상학적 운동과 프레게에서부터 시작하는 분석 철학의 조류가 그 시발점에서부터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sup>6)</sup>

현상학의 핵심적 동기를 학문의 정초토대를 제공하는 기초 학문의 해명이라고 할 때, 『서설』에 등장하는 순수 논리학은 후설의 철학 체계에서 최초로 전체 학문의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토대를 다루는 개념으로서 등장한다. 학문에 대한 이론으로서의 순수 논리학 개념은 이후 후설이 제시하는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라는 현상학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 『이념들 I』에서 제시된 초월론적 현상학은 이러한 엄밀학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러한 후설 철학의 관심사를 고려한다면 순수 논리학의 해명은 후설 철학 전 시기를 지배하는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현상학이 추구하는 근본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한편으로 순수 논리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의 핵심적 방법론인 환원, 판단중지의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인 『논리연구』 시기의 후설 철학이, 이후의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

5) E. Husserl,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Logos* I, 1911, pp. 289-341, *Hua* XXV, pp. 3-62 재수록, p. 8

6) 더밋의 지적대로 두 철학자가 현상학과 분석철학이라는 지금은 서로 교류가 불가능해 보이는 두 철학적 조류의 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생전에 후설과 프레게는 동일한 철학적 관심을 공유하며 서로의 연구에 대해서 교류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M. Dummett, *Origins of Analytical Philosoph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월론적 현상학의 구도 속에서 순수 논리학은 더 이상 학문이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초월론적 현상학을 구성하는 기초적 개념들로 — 특히 형식적 존재론으로 — 해소된다. 순수 논리학이 초월론적 현상학의 구도 안에서는 형식적 존재론으로 해소되었다면, 이는 한편으로는 초월론적 현상학에서의 학문에 대한 이론은 더 이상 순수 논리학으로 해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제시되는 학문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 순수 논리학과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는가를 해명으로써 초월론적 현상학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1.2. 문제의 배경

후설의 학문적 출발점이 철학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7)</sup>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단순히 후설이 수학에서 철학으로 연구의 영역을 변경했다는 전기적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변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동기의 해명이다. 그리고 이 해명은 개인사적 측면의 해명이나 심리적 동기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철학에서 후설이 탐구했던 문제들에서 부딪친 근본적인 난점을 통해서 추적해야만 할 것이다. 후설이 연구의 영역을 변경하면서까지 풀고자 했던 난점들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것은 또한, 후설 철학을 더욱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줄 때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선 후설의 최초의 철학적 저작인 『산수의 철학』의 성격을 잠시 언급

---

7) 수학자로서의 훈련이 이후 후설 철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C. Hill, “On Husserl’s Mathematical Apprenticeship” in *The Road Not Taken: On Husserl’s Philosophy of Logic and Mathematics*, London: College Publications, 2013, pp. 1-30.

할 필요가 있다. 후설은 브렌타노의 제자이며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슈툼프의 지도 아래 「수의 개념에 대하여」<sup>8)</sup>란 교수자격논문을 작성한다. 이후 자신의 교수자격논문을 확장해서 출간한 저작이 『산수의 철학』<sup>9)</sup>이다. 이 저작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후설의 철학적 탐구의 최초의 대상은 산수라는 학문에 대한 철학적 해명이었고, 이를 위해 수 개념의 근거를 해명하는 것을 이 저작의 목표로 삼고 있다. 『산수의 철학』에서 후설의 작업은 이미 산수라는 개별적 학문의 학문적 토대에 대한 질문을 내포한다.

우리는 후설과 동시대에 논쟁한 프레게에서도 이와 동일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프레게 또한 『산수의 기초』<sup>10)</sup>에서 후설과 동일하게 수의 해명을 목표로 삼았으며,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수의 해명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은 시급하게 극복해야할 과정이라고 설명한다.<sup>11)</sup> 비록 『산수의 철학』에서 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후설 자신이 이후에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후설의 동기도 프레게의 것과 동일하다. 산수라는 수학의 기초적 분야마저도 그 근거를 확실히 지니고 있지 못하며, 이는 산수가 다루는 가장 기초적 개념인 수의 본성에 대해서조차 일치된 의견이나 확고한 토대도 확보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8) E. Husserl, “ber den Begriff der Zahl. Psychologische Analyse”, Halle a. S., Heynemann’sche Buchdruckerei, 1887. Hua XIII, pp. 289-339 재수록.

9) E. Husserl, *Philosophie der Arithmetik: Logische und Psychologische Untersuchungen Erster Band*, Halle a. S., C. E. M. Pfeffer, 1891, Hua XIII, 통상적으로 『수학의 철학』이나 『산술 철학』이라고 번역되어온 표제를 『산수의 철학』이라고 변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학’이라고 번역하는 기존의 사례는 Arithmetik이 수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 두 번째로 Arithmetik을 ‘산술’이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산수를 일종의 셈하는 기술로 한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후설과 동시대에 수의 본성에 관하여 논쟁을 했던 프레게(Frege)의 저작 번역에서 이미 Arithmetik을 통상적으로 산수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Arithmetik을 산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0) 고틀롭 프레게, 『산수의 기초』, 박준용·최원배 역, 아카넷, 2003

11) Ibid., p. 29

다. 따라서 후설의 작업은 수의 본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수를 기초 개념으로 삼는 산수라는 학문에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후설은 또한 이러한 작업이 수학의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수라는 기초개념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인식론적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암묵적으로 깨닫고 있었다.<sup>12)</sup>

후설은 자신의 철학의 돌파구와 같은 작업이라고 평가한 『논리연구』에서 학문 일반의 학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명은 『산수의 철학』의 실패에서 비롯한다. 『논리연구』에서 후설은 『산수의 철학』에서의 자신의 심리학주의적 경향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을 보여준다.<sup>13)</sup> 이 반성의 핵심은 자신이 『산수의 철학』에서 수행한 수에 대한 해명이 수를 이념적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수를 이념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 후설의 입장은 당대에 가장 널리 퍼져있던 심리학주의적 논리학과 일정한 유사성을 지닌다.

심리학주의적 논리학의 문제는 심리학주의적 논리학이 근거하는 학문인 심리학이 그 자체로 경험학문이라는 데 있다. 즉 경험학문인 심리학에 논리학이 근거한다면, 이 논리학에 토대를 둔 모든 학문은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서설』에서의 후설의 작

12) 후설은 자신의 초기 저작인 『산수의 철학』에 대해서 말년의 저작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의 후기의 논의방식으로 표현하면, 현상학적-구성적 연구였고, 동시에 최초의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범주적 대상성들’(더 높은 단계 서열의 집합들과 부정수들)을 ‘구성하는’ 지향적 활동들 — 따라서 그 대상성들은 이 활동들의 작업수행들로서 그 의미의 완전한 근원성 속에 원본적으로 등장한다 — 에 입각해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한 첫 번째 연구였다.” Hua 17, §27.(『형식논리학과 선험 논리학』, 이종훈 외 역, 나남, p. 172)

13) Hua XVIII, p. 7, “우리가 비로소 벗어난 과오들에 대해서보다 더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없다.”(“Man ist gegen nichts strenger als gegen erst abgelegte Irrtümer.” 해당 구절은 괴테의 『프랑스 종군기』(*Kampagne in Frankreich*)에 나오는 다음 구절의 인용이다. “... man gegen nichts strenger ist als gegen erst abgelegte Irrtümer, ...”

업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수 이론에 대한 비판이자, 더 나아가,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라는 위협으로부터 학문의 학문성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연역적이며 경험에 독립적인 형식적 논리학이 논리학의 본질적 성격임을 밝히고, 이 논리학에 기반해서만 학문의 학문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서설』에서 후설은 자신이 새로 도입한 형식적, 선험적 논리학을 ‘순수 논리학’이라 부르는데, 이 ‘순수 논리학’은 단지 경험과 인간의 심리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후설에게 이 순수 논리학은 학문을 학문으로서 가능케 하며, 따라서 모든 학문이 학문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 따라야하는 학문 일반에 대한 학문인 학문론(Wissenschaftslehre)<sup>14)</sup>이다.

### 1.3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후설의 순수 논리학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는 한 사례로서, 최대근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15)</sup> 이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을 요약하면 후설의 순수 논리학은 논리학에 대한 심리주의적 입장과 논리주의적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논리학에 명증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

<sup>14)</sup> 후설의 초기 철학에 자주 등장하는 Wissenschaftslehre에 해당하는 표준적인 번역어는 정해지지 않았다. 철학사에서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철학자는 피히테이다. 따라서 우리는 피히테 저작의 번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히테 저작의 번역에서도 이 용어는 통일되지 않고 ‘지식론’, ‘지식학’, ‘학문론’ 등으로 상이하게 번역되고 있다. 후설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한데, 어떤 학자들은 Wissenschaftslehre와 Wissenschaftstheorie 양자를 모두 학문이론으로 번역하기도 하며, 어떤 학자는 전자를 학문론으로 후자를 학문이론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를 학문론으로 후자를 학문이론으로 번역하는데, 그 이유는 후설이 두 용어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 용어는 구분해서 번역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up>15)</sup> 최대근, 「후설 순수 논리학의 명증성 개념 연구: 『논리연구 I』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3.



후설에 대한 불충분한 독해에서 비롯한다.

순수 논리학에서 ‘순수 rein’라는 형용사는 어떠한 경험에도 그 근거를 지니지 않는 경험독립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수 논리학은 경험적 내용에 독립적인 논리학이며, 그것은 순진하게 형식적이고 연역적인 성격을 지닌다. 반면에 명증은 진리가 경험되는 지향적 체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구분해야 할 것은 후설의 명증이론은 진리를 체험하는 것으로서 명증은 체험의 분석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순수 논리학은 그 자체로는 하나의 체험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식에 독립적인 것으로서 형식적이며, 따라서 어떠한 지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립해야만 하는 이념적 대상이다. 더구나, 후설은 후기의 저서에서 이러한 형식적 논리학을 명증에 기반한 초월적 논리학의 체계 속으로 포섭한다. 따라서 후설의 철학 체계 내에서 살펴보아도 순수 논리학을 명증성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학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의 철학적 기획을 오독하는 것이다. 이렇듯 최대근의 해석이 빠지는 오류의 근본적인 이유는 『서설』에서 사용되는 논리학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고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 1.4. 논문 진행의 개요

논문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순수 논리학 개념의 등장 배경과 동기를 다룬다. 순수 논리학은 후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19 세기에 벌어진 수학과 논리학의 본성에 대한 논쟁들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이 논쟁에서 후설은 수학의 기초적 개념인 수를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산수의 철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의 해명은 수를 심리적 파악작용에 의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심리학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

산수의 철학』의 초기 입장에 대해서 후설 스스로 『서설』에서 철저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 변경은 후설이 순수 논리학이 등장하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2 장의 1 절에서는 예비적인 작업으로 19 세기의 수학에서의 기초 개념들의 철학적 해명의 필요성과 수학과 논리학을 둘러싼 당대의 논쟁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2 장의 2 절에서는 『산수의 철학』에서 후설이 왜 실패하고 있는가를 해명하고, 이러한 실패가 순수 논리학으로의 입장변화의 근본 원인임이 드러난다. 『산수의 철학』에서 후설은 수를 “多”의 한 종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다는 심리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인식되는 집합의 추상물이라고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심리학적 파악작용으로서 인식된 수들의 표상이 객관적인 존재론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펼친다.

논문의 3 장에서는 『서설』에서 제시되는 순수 논리학이 어떻게 학문의 기초적 개념을 다루는 학문론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보편적 연역이론, 다양체이론으로서의 순수 논리학이 학문들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초적 학문으로서 규범적 학문이 되는 과정에서 후설이 파악하고 있는 규범성과 연역적 학문의 관계가 고찰될 것이다.

논문의 4 장에서는 3 장에서 밝혀진 순수 논리학이 이후의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나아간 후설 철학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후설이 제시하고 있는 엄밀학의 이념과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순수 논리학의 지위를 살펴본다.

## II. 순수 논리학 성립의 주요 동기

『서설』의 핵심 주제인 순수 논리학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고통스러운 개종의 결과물이다.<sup>16)</sup> 『서설』 이전에 출간된 저작인 『산수의 철학』에서 후설은 수에 대한 심리학주의적 입장에서 서 있었다. 후설에 따르면 수는 일종의 심리적인 구성물이다. 『서설』에서 후설이 취하고 있는 반심리학주의를 고려한다면, 심리학주의에 대한 후설의 입장 변화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해명하는 것은 순수 논리학을 해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2 장에서는 심리학주의에 대한 후설의 최초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를 그의 초기 수 이론의 난점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우선 예비적인 스케치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논리학과 수학을 둘러싼 당대의 논쟁에 참여한 『산수의 철학』에서, 후설은 수학의 가장 기초적 개념인 수의 해명을 책의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후설의 수 이론은 주관적 파악작용으로서의 수에 대한 파악과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수의 지위를 혼동함으로써 수에 대한 적절한 이론을 제시

---

<sup>16)</sup> 1906년 9월 25일에 작성한 개인적 기록에서 후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산수의 철학』을 여러 번 읽었다.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순진한지, 그 작업은 내게 거의 유치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 내가 그 책의 출판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 이유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 나는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있었다. 게다가 그 책은 본질적으로 1886년과 1887년에 구상된 것이었다. 나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철학적 재능에 대한 적절한 연습도 없었던 초보자였다. 수학적 사고의 논리, 특히 수학적 계산의 논리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소한 영역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다. 즉 순수 논리적 세계와 실제 의식의 세계, 또는 지금의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는, 현상학적인 세계와 심리학적 세계.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상호 연관되어야만 했으며, 내적 통일성을 형성해야만 했다. 나는 한편으론 표상과 판단의 본질, 관계 이론 등과 관련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수학과 논리학의 형식주의들의 상호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E. Husserl, “Personal Notes” in *Early Writings in the Philosophy of Logic and Mathematics*, 1980, Edmund Husserl Collected Works. Vol. V, p. 490-491

하지 못한다. 수의 지위에 대한 혼동의 근거에는 논리학에 대한 후설의 불충분한 이해가 깔려있다. 따라서 후설이 이후 『서설』에서 선택한 선험적 논리학으로서의 순수 논리학을 『산수의 철학』에서의 자신의 초기 입장이 좌절된 이후 새롭게 논리학을 정의내리고자 하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

후설은 『산수의 철학』에서 수의 해명을 통해서 하나의 개별적 학문인 수학의 기초적 개념을 정초하려 하였지만 이는 그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실패에 그친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후설에게 학문의 기초를 정초하는 것이 — 『산수의 철학』에서는 이러한 정초 작업이 수학이라는 특정한 학문에 한정되지만 — 이미 그의 철학적 작업을 이끄는 근본적 동기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학문의 기초를 정초하려는 그의 동기는 『서설』에서 순수 논리학을 통해 여타의 모든 학문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확장된 계획으로 나타난다. 순수 논리학은 단순히 논리학의 심리학주의적 해명을 반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학문성을 위협하는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논리학이 여타의 다른 학문들이 따라야할 법칙을 제공하는 규범적 학문이라면, 논리학 자체는 그 규범성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후설은 심리학주의라는 경험적 학문에 의해서 논리학이 정초된다면, 논리학은 자기 반박적인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논리학에서 경험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주의를 몰아낸 이후 후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선험적인 논리학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수의 철학』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학문론의 동기가 『서설』에서 제시되는 이유는 선험적 논리학이라는 순수 논리학의 성격만으로는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다. 순수 논리학이 학문론으로서 요청되는 이유는 오히려 논리학을 규범학으

로 파악한 전통적인 관점 자체에 후설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후설에 따르면 논리학이 규범학으로서 지니고 있는 규범성은 논리학의 연역적 본질에 의존하는 이차적이고, 관계적인 속성이다. 따라서 후설에게 먼저 해명되어야 할 것은 논리학이 어떻게 그러한 규범성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 2.1. 논리학의 개혁으로서의 순수 논리학

### 2.1.1. 수학기초론 논쟁

수학자는 언제 철학자가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후설과 동시대에 논쟁을 벌인 프레게의 언급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레게는 『산수의 기초』의 머리말에서 “하나라는 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조차 수학자들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수라는 학문의 기초적 개념조차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수라는 기초적 개념에 대한 해명이 불완전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수 개념인 양의 정수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난점이 없다고 여기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18)</sup> 우리는 일상적으로 수 하나(Die Zahl Eins)를 하나의 사물, 즉 연필 하나 혹은 사과 하나라는 표현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프레게는 사물의 개수와 수 자체는 동일하지 않으며, 수는 사물을 셈 하는 것에서 추상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프레게는 수에 대한 무관심과 더불어 심리학주의와 경험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오해들이 수의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인 표상을

---

17) 고틀롭 프레게, 『산수의 기초』, 박준용·최원배 역, 아카넷, 2003, pp. 27-29

18) Ibid., p. 30, 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오해 때문에 배움의 첫 번째 조건인 ‘무지의 지’가 결여되어있다고 프레게는 지적한다.

혼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산수의 기초』에서 수행하는 자신의 작업이 철학적 작업임을 밝히고 있다.<sup>19)</sup>

후설이 최초의 저작인 『산수의 철학』에서 시도한 작업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프레게의 동기와 일치한다. 프레게와 마찬가지로 후설도 수의 개념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수학이라는 학문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20)</sup> 후설과 프레게뿐만 아니라 당대의 많은 수학자, 논리학자, 철학자들에게 수라는 기초적 개념을 해명하는 것은 수학에서 핵심적인 철학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수학이라는 학문의 확실성은 왜 문제가 되는가?

우선 시대적으로 『서설』이 발간된 19 세기의 수학이라는 학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펠릭스 클라인은 19 세기의 수학의 발전이 이전 세기의 발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한다.<sup>21)</sup> 이러한 클라인의 주장은 19 세기의 수학이 이전 세기의 수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9 세기에 이루어진 수학적 발전의 일면은 수학에 도입된 새로운 개념적 도구들에서 찾을 수 있다.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의 도입은 대수학의 범위를 넓혔으며, 기하학을 복소평면을 통해 해석하는 해석 기하학의 발전은 기하학, 대수학, 산술학의 전통적 구분을 통합한 하나의 통일적 수학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낳았다. 하지만, 수학의 기초적 개념들에 대한 해명은 수학의 비약적인 학문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허수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

---

19) Ibid., p. 32, 프레게가 자신의 작업을 철학적 작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산수의 근본 법칙 1』에서 더 상세하게 제시된다. 이에 대해서는 『산수의 근본법칙』 서문을 참조할 것.

20) Hua XII, p. 13, “따라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체 수 개념의 분석은 산수의 철학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21) Felix Klein, *Vorlesungen über die Entwicklung der Mathematik im 19. Jahrhundert*, 한경혜 역, 『19세기 수학의 발전에 대한 강의』, 나남, 2012, p. 16

당대의 많은 수학자들은 서로 상이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었으며,<sup>22)</sup> 여러 종류의 수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가 무엇인가를 두고서도 상이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렇듯, 19 세기의 수학은 수와 같은 기초적 개념들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에 있어서는 비약적일 만큼 넓은 영역을 개척했다는 이중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수학적 떠받치는 기초적 개념들 자체가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학이라는 학문의 확실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수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태였다. 그 자신이 수학자였던 후설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식논리학과 초월논리학』에서 “19 세기에 갑자기 싹튼 수학적 해석학이 혼란 속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 해석학의 논리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끌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회고한다.<sup>23)</sup>

한편으로는 수학과 논리학의 관계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수학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수천 년간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은 논리학이 이제 새롭게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시도들은 19 세기 해석학, 집합론 등의 수학적 발전을 논리학에 적용하고자 하였는데, 칸토어에 의해서 집합론의 개념이 새롭게 제시되었고, 펠릭스 클라인은 에어랑겐 프로그램<sup>24)</sup>을 통해서 기하학적 대상들을 군 이론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지 불은 수학적 해석학의 연구를 통해서 논리학이 수학과 결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sup>25)</sup> 논리학을

22) 후설은 『서설』의 발간 이후에도 허수와 같이 수학에서 사용되는 허구적(상상적)imaginary 개념들을 수학의 기초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1902년에 괴팅겐 수학협회에서 행한 강의에서 후설은 이 주제를 상세하게 다룬다. E. Husserl, “Das Imaginäre in der Mathematik” in *Hua* XIII, pp. 430-451

23) *Hua* XVII, §. 28

24) 박승역, 「후설 현상학에서 수학기초론 논의의 역할에 관하여」, 『철학연구』 제 82집, 2008, pp. 81-96

25) G. Boole, *Mathematical Analysis of Logic*, 1847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차적 원인이 수학의 발전이라면, 더 근본적인 원인은 논리학과 수학 중 어떤 학문이 더 근본적인 학문인가에 대한 철학적 물음이 배경에 놓여있다.

19 세기에서 20 세기 초반에 진행된 소위 ‘수학기초론’ 논쟁에 참여하는 여러 입장 중에서 후설과 관련해서 직관주의와 논리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브로우베르로<sup>26)</sup> 대표되는 직관주의는 수를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파악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직관주의의 입장에서 수는 더 이상 플라톤적인 보편자의 영역에 속하는 독립된 대상이 아니다. 수학은 정신의 직관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증명을 통해서만 앎으로서 간주된다. 직관주의의 입장에서 배중률은 거부되는데, 배중률에 의한 증명은 직관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귀류법을 통한 간접적 증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직관주의적 입장에서는 허수와 같은 대상들을 파악하는데 난점을 보인다. 이들은 수를 직관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허수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논리주의 진영은 수학이 논리학의 법칙들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수학은 본질적으로 논리학과 다르지 않다. 프레게는 수학을 논리학의 한 종류로 파악했는데, 이러한 입장은 수학을 연역적인 논리법칙과 공리들로 환원시키려는 것이었다.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시키고자 했던 근본적인 동기는 수학의 기초를 더 확고하게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공준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대수적 연산의 정당화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공리들에 기초한 논리적 법칙들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수학이 논리학의 공리들과, 공리를 기반으로 하는 연역적인 법칙에

---

<sup>26)</sup> 브로우베르와 후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Mark van Atten, *Brouwer Meets Husserl: On the Phenomenology of Choice Sequences*, Springer, 2007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수학이 논리적 법칙과 동일한 수준의 확실성을 지녀야 한다는 요구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수학기초론’이라는 용어가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사실이다. 어떤 이는 20세기 초중반의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만을 수학기초론의 대상으로 다루는데 반해서, 어떤 이들은 수학기초론의 범위를 미적분의 극한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파악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학기초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후설이 『산수의 철학』과 『서설』을 작성한 시기를 고려해볼 때, 『서설』은 수학기초론의 논쟁에서도 논리주의와 심리학주의의 대립이 중심이었던 시대의 저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산수의 철학』에서 후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수의 본성에 대한 해명 이후에, 수 개념이 기호로서 산수 체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수학적 대상으로서의 수에 대한 파악이 어떠한 본질을 지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후설은 심리학주의의 경향을 따르고 있었다. 19세기에 대두된 심리학주의는 수에 대한 파악도 인간의 심리작용의 일부이며, 따라서 인간의 심리작용에 대한 객관적 학문인 심리학이 고도로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의 개념도 해명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경험주의의 전통에서 출발한다. 이미 밀은 수를 대상에 대한 셈에서 추상되었다고 파악하였고, 논리 법칙들은 대상에 대한 우리 마음의 확실성에 대한 감정적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밀의 논리대로라면, 수는 조약돌의 개수를 세는 것과 같은 인간의 경험에서 비롯하고, 모순율은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경험의 확실성에서 그 근거를 지닌다.

심리학이 논리학과 수학을 기초를 제공한다는 심리학주의는 그 출발점

---

<sup>27)</sup> J. S. Mill, *A System of Logic*, 1843.

에서부터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심리학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심리학은 그 자체로 경험과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심리학은 경험에 기반한 관찰 내용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다. 두 번째, 심리학을 포함한 객관적 과학은 수학을 이상적인 대상으로서 삼고 있으며, 관찰된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를 수치화하고, 수학화하려는 이념을 자신의 학문적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심리학은 경험에 의해서 관찰된 대상을 파악해야 하면서도, 그 관찰된 자료의 이론적인 구축은 수학의 연역적 모델에 근거하려는 학문이다. 이제 심리학이 수학과 논리학의 영역을 정초하려 시도한다면, 심리학은 이미 자신이 근거하고 있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스스로 정초하려고 하는 선결문제요구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심리학이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대상에 의해서 이미 심리학의 방법론이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8)</sup>

## 2.1.2. 수학기초론 논쟁에서의 후설의 초기 입장

### (1) 『산수의 철학』의 심리학주의적 수 파악

『산수의 철학』<sup>29)</sup> 1 권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기호화되지 않은 다수, 단위, 수 등이 기호화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 탐구를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기호화된 수 개념과 기수의 논리적 기원에 대해서 다룬다. 이 책의 부제가 “논리

<sup>28)</sup>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해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철학적 자연주의는 이와 대조적으로 경험과학이 다른 학문에 의해서 정초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증거로서의 경험 그 자체에 근거해야 하며 물리학을 모범으로 삼는 경험과학이 하나의 규범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sup>29)</sup> 『산수의 철학』은 본래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발간될 계획이었다. 후설은 1권을 발간하면서 일 년 이내에 2권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Hua XII, p. 287)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산수의 철학』의 제 2권은 출간되지 않았다.

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드러나듯, 후설은 1부에서는 수 개념의 심리학적 해명을, 2부에서는 수 개념이 기호로서 어떻게 표상되는가의 문제, 즉 논리학적 기원의 문제를 다룬다.

“다, 단위, 기수의 본래 개념”이란 표제가 달린 『산수의 철학』 1부에서 후설은 다 *Vielheit*, 단위 *Einheit*, 그리고 기수 *Anzahl* 라는 기초적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산수의 기초적 개념들을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산수의 기초적 개념들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수학의 기초적 개념들의 구성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수 자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올바르게 던지기 위해서는 어떤 수가 가장 본질적인 수로서 해명되어야 하는 수인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서 후설은 일상적인 언어에서 쓰이는 다양한 수 개념이 있음을 지적한다. 후설의 지적대로, 일상적인 언어에서 우리는 수를 지칭하는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기수와 서수뿐만이 아니라 일회(一回), 이회와 같은 반복을 나타내는 수 표현(회수), 혹은 일배수, 이배수라는 배수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의 개념을 고려해보면, 여러 수 개념들 중에서도 어떤 수가 가장 기초적인 수인가는 그 자체로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후설은 가장 기초적인 수의 후보로 기수와 서수를 거론한다. 기수와 서수를 제외한 다른 수들(회수, 배수, 분수)은 기초적 수로부터 논리적으로 특수화 될 수 있는 2차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sup>30)</sup> 즉, 우리가 몇 배수라고 칭할 때(1 배수, 2 배수,  $n$  배수), 우리는 이미  $n$ 의 자리에 더 기초적인 어떠한 수 개념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

기수와 서수 중에서 어떠한 수가 더 근본적인 수인가는 여전히 후설에게 문제로 남아있다.<sup>31)</sup> 기수와 서수 중 어떤 수가 더 기초적인 수인가의

---

<sup>30)</sup> Hua XII, p. 12

문제는 당시 수학기계의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후설이 밝히고 있듯이, 수학자들 사이에서 기수가 가장 기본적인 수라는 입장은 후설의 스승인 바이어슈트라스가 주장하고 있으며, 기수가 서수의 응용에 불과하며 따라서 서수가 더 기본적인 수라는 입장(해밀턴, 헬름홀츠, 크로네커) 그리고 이 두 입장을 모두 거부하고, 직선적인 크기 개념이(Begriff der linearen Größe) 수의 기본 개념이라는 입장이 서로 대립한다.<sup>32)</sup> 『산수의 철학』에서 후설은 기수가 수 개념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 개념이라는 확정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는다.<sup>33)</sup> 하지만 후설은 기수가 가리키는 대상의 이름보다 서수가 가리키는 대상의 이름이 더 종속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기수가 집합을 지시하고 서수가 계열을 지시한다면, 계열은 순서의 집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설은 이러한 입장이 다른 수학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잠정적인 문제로 남겨둔 채 이후 본격적으로 수의 심리학적 파악작 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sup>34)</sup>

후설에 따르면 수에 대한 정의들 중에서 잘 알려진 정의는 “수는 단 위들의 다이다”(Die Zahl ist eine Vielheit von Einheiten)<sup>35)36)</sup>라는 정의이

31) 『산수의 철학』과 대조적으로 후설의 교수자격논문인 「수 개념에 관하여」에서는 명시 적으로 기수를 중심으로 수를 분석하겠다고 전제된다. 후설이 자신의 「수 개념에 관하 여」가 문자 그대로 『산수의 철학』의 1-4장을 이룬다고 언급한 이래 두 저작은 동일한 것으로 오해되어왔지만, 실상은 오히려 이 두 저작의 차이점이 상세하게 비교될 필요 가 있다.

32) Ibid., pp. 11-13

33) 후설은 기수에 대한 이론을 『산수의 철학』의 2권에서 제시하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산수의 철학』 2권은 출간되지 못하였다.

34) Ibid., pp. 12-13

35) Ibid., p. 14

36) 수를 다(Vielheit)로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후설이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다. 후설 당시에도 이미 많은 수학자들이 수를 다로 해명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서 프레게는 『산수의 기초』에서 다와 단위로서 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산수 의 기초』 2장의 28절에서 프레게는 사물들의 집합으로서의 수 파악과 단위들의 집합으

다. 후설은 자신이 해명하고자 하는 기수에 대해서 위의 정의는 넓은 의미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후설은 좁고 고유한 의미에서 다를 통해서 정의되는 것은 우리가 수로서 파악하는 특정한 수라고 주장한다. 수의 경우에 우리는 2, 3, 4 라는 특정한 수를 지칭하지만, 다는 아직 ‘얼마나 많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란 물음에 결정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수는 다와 다르다. 하지만, 특정한 수는 또한 그것을 말할 때에 다를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둘의 외연은 동일하다. 따라서 기수 개념은 자신의 종에 속하는 특정한 수들의 외연을 통해서만 다 개념으로서의 구체적 현상을 포함할 수 있다.<sup>37)</sup> 후설의 수 해명을 세 단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고 있다.<sup>38)</sup>

- 1) 수 개념은 다 개념과 동일한 외연을 지니며, 수 개념은 다를 전제하는 것이다.
- 2) 다 개념은 집합에서 추상된 것이다.
- 3) 집합은 심리학적인 파악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

후설에 따르면 기수와 다 개념은 외연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수 개념은 이미 추상적인 다의 형태들(Vielheitsformen) 사이의 차이를 앞선 것으로(von einander) 전제하고 있지만, 다 개념은 그렇지 않다”<sup>39)</sup>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따라서 기수는 다의 형태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

로서의 수 파악을 거론하고, 이어지는 3장 “단위와 하나에 대한 여러 견해”에서 단위들의 집합으로서의 수라는 입장을 비판한다.

<sup>37)</sup> Ibid., pp. 14-15

<sup>38)</sup> Ibid., pp. 14-21

<sup>39)</sup> Ibid., p. 83

를 파악한 이후에 도출된다. 수를 단지 특정한 다라고 한다면 수 개념의 파악은 다 개념의 해명을 요구한다. 후설은 다를 대상으로부터 추상화된 개념으로 파악하는데, 이때 추상의 대상은 구체자들의 총체이다. 구체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설에 따르면 구체자는 우리가 그것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구체자로서 집합으로 파악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앞의 사과를 집합으로서 간주할 수 있듯이, 우리의 상상에 등장하는 천사들도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수가 왜 다를 전제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 개념은 이미 추상적인 다의 형태들 사이의 차이를 앞선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다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 주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는 다의 형태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이후에만 사후적으로 도출되며, 이때 도출되는 수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도출된다. 후설은 이러한 다와 수의 관계를 일종의 종과 류의 관계로 파악한다. 즉 수는 다의 한 종(種)이며, 다는 수를 종으로 가지는 류(類)이다.<sup>40)</sup>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다 자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 개념이 집합에서 추상된 것이라는 후설의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후설은 여기에서 색깔의 비유를 들고 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빨강을 추상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들에서의 빨강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추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설에 따르면 이러한 추상은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는 구체적인 대상들의 집합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색깔이 단지 개별적 경험으로부터 파악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물들의 색깔의 집합(예를 들면 빨간색 사물들로부터 추상된 빨강)으로부터 추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다 개

---

<sup>40)</sup> Ibid., p. 222

념이 대상들의 집합으로부터 추상된다는 후설의 견해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주장이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아직 수가 대상들의 집합으로부터 나왔다고 후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후설은 대상들의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묻는다. 우리가 어떤 집합을 안다는 것은 그 집합의 개별자들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개별자들의 총체로서의 집합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후설에 따르면 이때 집합과 그 집합에 속하는 개별자들의 관계는 집합적 결합(kollektive Verbindugn)을 지닌다.<sup>41)</sup> 예컨대, 칸트 전집 열 권은 우리가 파악하는 의도에 따라서 각각의 개별적 책들로 파악될 수도 있고, 한 질의 전집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칸트 전집이라는 구체적 대상이 개별적인 책들로 파악될 때, 개별적 책들의 집합에서 우리는 다가 있음을 추상하고, 이 다가 10이라는 수와 동일한 외연을 지닌다고 파악한다. 또한 우리는 칸트 전집이라는 대상을 총체로서 한 질로 파악하고, 이때 그 집합의 다름 1이라는 수와 동일한 외연을 지닌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집합적 결합은 대상에 내재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묶어서 파악하는가의 문제이며, 이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후설이 집합을 심리학적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일련의 잡다한 대상들을 집합으로 무리지울 수 있는 필연적인 논리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들의 본성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그 사물을 특정한 이 집합으로 혹은 저 집합으로 무리 짓는 필연성은 없으며, 따라서 집합적인 결합은 대상의 표상 속에서 직관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리학적 작용에 의해서만 존립한다.

## (2) 심리학주의적 수 파악의 문제점

---

<sup>41)</sup> Ibid., p. 20

『서설』에서 후설은 『산수의 철학』에서의 자신의 수 파악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셈하는 것과 산수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들로서,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심리학적 작용으로서, 당연히 그것들은 심리학과 관련된다. 심리학이야말로 심리학적 사실 일반에 대한 경험적 학문이기 때문이다. 산수는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산수의 탐구영역은 알려져 있듯이, 매우 익숙한 이념적 종들의 계열인 1, 2, 3, ...으로서 완전하고 극복하기 어렵게 우리에게 규정된다. 개별적 사실들에 대해서, 시간적 규정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간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 수와 수들의 합산과 곱셈은(그리고 그와 같은 무엇들은) 여기저기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셈하기, 합산하기, 곱하기 등등의 우연한 작용이 아니다. 자명하게도, 그것들은 또한 매번 그것이 표상되는 표상들에 따라 상이하다. 수 다섯은 나 혹은 어떤 다른 누군가가 다섯을 셈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나 혹은 다른 어떤 이의 다섯의 표상이 아니다.<sup>42)</sup>

무규정적 다가 심리적 작용에 의해서 특정하게 규정된 것으로서 수를 파악하는 후설의 입장에서 해명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다가 특정한 수로서 규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후설은 앞서 “얼마나 많이”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수이며, 다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칸트 전집의 예를 상기해 보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경험을 통해 책이라는 대상이 있음을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의 집합(책이라는 집합)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른 대상들(책상, 연필 등등)과 구분한다. 그리고 책이라는 대상들이 속하는 집합의 구성원의 수를 다로 파악하고, 그 다를 셈하며, 이제 세어진 다는 10이라는 수의 표상을 얻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

<sup>42)</sup> Hua XVIII, §46. (강조는 필자)



이미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집합의 구성원을 셈할 때, 수라는 개념을 전제해야만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책 하나, 책 둘, 책 셋을 셈하고 있을 때, 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둘, 셋이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둘 셋이라는 수를 사용해서 대상들을 셈하는 것이다. 따라서 셈하는 과정 자체는 심리적인 것이지만, 이미 이념적 대상으로서의 수를 전제해야만 하며, 이념적 대상으로서의 수가 없이는 심리적 작용으로서의 셈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후설은 셈하는 작용은 심리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수는 심리적 작용에서 떠오르는 표상이 아니라는 점을 『산수의 철학』 출간 이전에 이미 깨닫는다. 이제 수는 다의 심리적 파악에서 표상되는 것일 수 없으며, 셈하는 작용과 독립된 이념적 대상으로 간주된다.

## 2.2. 순수 논리학에 대한 예비적 논의

『산수의 철학』에서 심리학적 파악작용으로서 수를 파악한 후설은 『서설』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순수 논리학이라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한다. 우선 ‘순수 논리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리학을 수식하고 있는 ‘순수’라는 형용사는 무엇을 말하는가?<sup>43)</sup> 순수 논리학이라는 용어를 후설이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여러 철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sup>44)</sup>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칸트의

43) 후설은 순수(rein)라는 형용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순수 현상학, 순수 수학, 순수 형식이론과 같은 용어가 그것이다. 각각의 용법에서 순수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후설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가는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순수 논리학이라는 용어가 이미 당대에 상당히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칸트뿐만이 아니라, 프레게도 이미 순수 논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용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순수’라는 형용사가 경험의 배제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44) 순수 논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주요한 철학자들로 칸트, 조지 불, 불차노 등을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sup>45)</sup>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초월논리학과 일반 논리학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때 일반논리학은 순수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으로 구분된다.

**일반** 논리학, 그 중에서도 **순수 논리학**은 그러므로 순정한 선험적 원리들만을 취급하는 것이고, 이성과 **지성의 기준**이다. 그러나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경험적이든 초월적이든) 그것들을 사용하는 형식과 관련해서만 그러하다. 반면에 일반 논리학이,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바 주관적인 경험적 조건들 아래에서의 지성사용의 규칙들에 지향되어 있다면, 그것은 **응용**논리학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경험적 원리들을 갖는다.<sup>46)</sup>

칸트에게 있어서 순수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것이 경험적인 것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있다. 칸트는 선험적 원리들을 취급하는 형식적인 것을 순수 논리학으로, 경험적 원리들에 대한 논리학을 응용 논리학으로 구분한다. 후설은 『서설』에서 이러한 칸트의 구분을 비판한다.<sup>47)</sup> 후설은 논리학에 대한 칸트의 구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서가 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설에 따르면, ‘이성’이나 ‘지성’과 같은 칸트의 개념들은 그 자체로 혼란스러운 신화적 개념들이며 따라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sup>48)</sup> 후설에 따르면 칸트의 ‘이성’과 ‘지성’과 개념들은 일종의 사유상태의 능력을 지시하는 개념들이며, 이러한 개념들은 그 안에 이미 순수 논리학을 전제하

---

들 수 있다.

45) 논리학에 대한 칸트와 후설의 관계는 다음을 참조하라. Kern, I., *Husserl und Kant*. 특히 2부 1장

46) I. Kant,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6. A53/B77. 칸트 인용의 관례에 따라 초판과 재판의 면수로 표기함.

47) Hua XVIII, §.58

48) Ibid., pp. 216-217

고 있다고 비판한다. 후설은 이러한 칸트의 설명이, 마치 무용 기술을 무용에 대한 능력으로서 해명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다.<sup>49)</sup>

순수 논리학이라는 칸트의 입장에 대한 후설의 비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후설이 순수 논리학을 경험에 독립적인 선험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을 사유의 능력과 연관해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후설에 있어서 순수 논리학은 경험 학문인 심리학주의에 기반한 논리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논리학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험적인 사유의 능력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 2.2.1. 논리학의 본성에 관한 『서설』의 입장

후설은 『서설』의 도입부에서 심리학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논쟁적 물음이 논리학에 제기된다고 설명한다.

- 1) 논리학은 이론적인 학문인가 실천적인 학문(하나의 “기술학”(Kunstlehre))인가?
- 2) 논리학은 다른 학문들, 특히 심리학 혹은 형이상학에 독립적인 학문인가?
- 3) 논리학은 형식적 학문인가? 혹은 흔히 간주되듯 ‘인식의 단순한 형식’에 관계되거나 혹은 아니면 그것의 “내용”(Materie)에 대해 고려하는가?
- 4) 논리학은 선험적이고 논증적인 성격의 학문인가 아니면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성격의 학문인가?<sup>50)</sup>

---

<sup>49)</sup> Ibid., p. 217

<sup>50)</sup> Ibid., p. 23

후설은 위의 질문들이 내밀하게 엮여있어서, 이 질문들에 대한 입장은 두 견해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51)</sup> 여기에서 후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각각의 입장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 물음에서 후설은 논리학이 이론적인 학문인지 아니면 기술의 일종인가를 묻고 있다. 기술로서의 논리학은 다음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니는데, 기술 그 자체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논리학은 우리의 사유가 따르는 알고리즘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사유의 기술로서의 논리학은 하나의 모범으로서 우리의 사유가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규범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이 질문은 논리학의 근본적 성격이 이론적인 것인지 아니면 규범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후설은 논리학의 규범적 성격을 부정하지 않지만, 모든 규범적 분과는 하나 이상의 이론적 분과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리학의 대상이 되는 판단은 그 자체로는 이론적 내용이지, 따라야만 하는 규범성을 지니지 않는다. 누군가 ‘a가 b이고 b는 c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에서, 그 사람이 ‘a는 c이다’라고 판단해야만 한다는 규범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논리학이 말하는 것은 단지 a가 b이고 b가 c일 때, a는 c라는 것이 참이라는 것이다.<sup>52)</sup> 따라서 모든 규범적 분과는 비규범적 앎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규범은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앎을 이론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후설은 이론적 진술이 규범적인 진술로 변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이론적 진술을 규범적 진술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논리학이 규범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점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학문

---

51) Ibid., p. 23

52) Ibid., §16.

일반이 따라야만 하는 학문으로서 논리학을 일종의 규범학이라고 할 때, 논리학이 이론적인 학문으로서 새로운 이론학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논리학은 이론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학문들에 규범적 학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지, 논리학 자체가 규범적인 학문은 아니다. 즉 논리학의 규범성은 상대주의적인 경험에 기반한 여타의 학문에서는 도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 논리학은 일차적으로는 이론적인 학문이며, 여타의 학문들에는 규범적인 학문이다.

두 번째 물음에서 후설은 논리학이 심리학과 형이상학에 독립적인 것인가를 묻는다. 심리학의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 후설은 형이상학과 논리학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이는 논리학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존재론을 전제로 삼고 있는가를 뜻한다. 후설은 시공간이 펼쳐진 외부 세계의 존재를 형이상학적인 물음이라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세계가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논리학의 존재 근거를 위협하는 것인가를 묻고 있다. 후설은 논리적 대상이 실재적 대상이 아닌 이념적 대상이며, 이념적 대상은 시공간에 독립적임을 주장한다. 논리적인 진리는 어떠한 외부 대상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진리라는 후설의 입장은 논리적 대상들이 보편자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플라톤주의라고 간주할 수 있다.

논리적 진리가 보편자의 영역에 존재한다면, 또한 그것은 지적 존재의 존재 유무와도 상관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후설에 의하면 논리적 참은 지구상에 인간과 같은 지적 존재가 모두 사라진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논리적 참을 인식하는 존재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논리적 참은 항상 참으로서 존재한다.

세 번째 물음의 배경에는 ‘사유의 경제학’Denkökonomie 이라는 마하의 주장이 있다. 후설과 동시대에 논쟁했던 마하는 학문이 사유의 경제성이

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모든 학문은 사유 속에서 사실들을 재구성 하거나 미리 구성해봄으로써 경험을 대신하거나 절약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재구성은 경험 자체보다 다루기 쉬우면서도 여러 면에서 경험을 대신할 수가 있다. 학문의 이와 같은 경제적 기능은 학문의 본질을 일관지하는데, 이는 가장 이론적인 고찰에서도 이미 명백히 드러난다<sup>53)</sup>

후설은 『서설』의 9 장에서 이러한 사유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 후설의 비판을 요약하자면, 사유의 경제학과 같은 입장은 일종의 심리적 법칙을 전제한다. 즉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사유의 절약이라는 개념 자체는 심리적 법칙의 성립 이후에 도출되는 개념이며, 따라서 사유의 경제학이라는 개념으로 논리학을 정초하는 것에 대해서 후설은 앞뒤가 바뀐 것(*ὑστέρων πρότερον*)이라고 지적한다.<sup>54)</sup>

네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논리학이 그 자체로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만일 논리학이 경험에 의한 귀납적 학문이라면,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논리적 법칙들을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논리 법칙이 우리의 경험에 의존적인 관찰에 의해서 세워진다면, 그것은 보편적 법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른 법칙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학은 더 이상 논리학으로서 보편적 성격을 지니지 못하며, 그 결과는 논리학을 상대적인 학문으로 전락시킨다.

## 2.3 소결론

---

53) E. Mach, 『역학의 발달』, 고인석 역, 한길사, 2014, pp. 671-672.

54) Hua XVIII, p. 211

후설 자신이 『논리연구』를 자신의 철학적 작업의 돌파구<sup>55)</sup>라고 표현했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어떤 의미에서 『논리연구』는 돌파구라는 표현을 가지게 되었는가? 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는 『산수의 철학』의 작성 시기 수 개념에 대한 후설의 입장에서 수의 파악작용이라는 심리적 사건과 수라는 대상의 존재론적 지위는 인간의 지적 파악능력과 무관하다는 두 사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설이 『서설』에서 자신의 이전의 입장인 심리학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정당한 자기 비판이다.<sup>56)</sup>

심리학주의 비판을 통해서 후설은 논리학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론적이고 연역적이며, 형식적이고 선형적인 학문으로 파악하였다. 순수 논리학은 단순히 경험에 독립적이라는 의미에서 순수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선형적 능력에서도 독립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논리학이다. 즉 그것은 인간을 비롯한 어떠한 지적 존재와도 독립적으로 이념적으로 존재하는 논리학이다.

---

<sup>55)</sup> Hua VIII, p. 8

<sup>56)</sup> 혹자는 후설이 애초에 심리학주의적 입장을 지닌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태창은 후설이 수의 객관적 지위와 수의 심리적 파악을 구분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모순적인 입장을 한 사람이 동시에 지닐 수는 없기 때문에 후설이 심리학주의적 입장을 지닌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태창의 주장은 오히려 그 자체로 심리학주의적 오류와 닮아 있는데, 인간의 심리는 모순적인 주장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이라는 논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사태를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모순된 입장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사유 속에서 모순된 두 입장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우리는 무엇이 모순인가를 파악할 수조차 없다. 모순된 두 입장을 동시에 참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모순된 두 입장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다. 오히려 후설의 난점은 그가 두 모순적인 입장을 모두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따라서 후설이 애초부터 심리학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정태창, 「후설의 심리학주의 논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Ⅲ. 학문론으로서의 순수 논리학

3 장의 목표는 순수 논리학의 ‘이념’이라고 밝히고 있는 학문론 Wissenschaftslehre 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순수 논리학은 대상의 보편적, 연역적 형식을 다루며, 이때 대상들은 시공간에 연장을 지니는 실재하는(real) 대상이 아니라 이념적(ideal) 대상들이다. 이렇게 파악된 의미에서 보자면, 순수 논리학은 이념적 대상들의 논리적 형식을 다루는 선형적인 개별 학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념적 대상의 보편적 구조를 다루는 순수 논리학이 어떻게 이념적 대상을 넘어서 실재하는 대상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순수 논리학이 논리적 법칙의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때, 논리적 법칙과 같은 이념적 대상은 실재하는 대상들과 존재론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 논리학이 다루고 있는 법칙적 보편성이 다른 여타의 학문들에서도 발견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순수 논리학이 그 대상적 측면에서도 보편적임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학문론으로서의 순수 논리학이 학문에 대해서 정초(Begründung)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학문에 대한 후설의 정의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학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일정한 해명이 없다면, 학문에 대한 정초라는 사태도 제대로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 3.1. 후설 철학에서 드러나는 중심 주제로서의 학문의 해명

후설의 현상학을 지배하는 중심적 동기(Leitmotiv)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후설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상이할 것이며, 그 상이한 답변은 후설 철학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하나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학문 자체의 해명이 후설 철학의 중심적 동기라고 간주한다.

우선, 학문의 해명이 후설 철학의 중심적 동기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헌적 증거들을 통해서 그 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 후설이 생전에 발간한 저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학문을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많은 저서들을 찾을 수 있다. 『서설』 이후 몇 년 뒤에 발표한 「엄밀학」<sup>57)</sup>에서 후설은 철학이 전통적으로 요구된 엄밀학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며, 만년에 발표한 『위기』에서는 당대의 유럽의 실증과학이 봉착한 학문성의 위기가 학문의 정초토대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8)</sup> 이렇듯 후설 철학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학문은 그 자체로 후설이 해명하고자 했던 하나의 주제적 대상임은 분명한 사실이다.<sup>59)60)</sup>

57) E. Husserl,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Logos* I, 1911, pp. 289-341, *Hua* XXV. pp. 3-62 재수록.

58) 후설 사후에 출간된 전집의 유고들에서는 학문을 주제로 삼는 더 많은 문헌들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상학의 이념』(*Hua* II), 『논리학과 인식이론 연구』(*Hua* XXIV)

59) 슈피겔버그는 후설의 철학의 특징을 개념들이 끊임없는 형성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엄밀한 학의 이상’은 후설 철학에서 전체에서 변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H. 슈피겔버그, 『현상학적 운동 1』, pp. 108-109

60) 후설의 여러 저작들에서 발견되는 학문에 대한 물음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어떻게 학문은 학문이 되는가? 즉, 학문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2. 학문(Wissenschaft)이 앎(Wissen)에 대한 것이라면, 앎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확고하며, 더 파고들어갈 전제가 없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만일 그러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그 근거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3. 다른 모든 학문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궁극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학문은 어떠한 학문인가?
4. 철학은 전통적 의미에서 철학에 부과된 엄밀한 학문의 이념을 되찾을 수 있는

학문 일반에 대한 학문으로서 순수 논리학은 모든 학문들의 근거를 제시하는 기초적 학문에 대한 후설의 입장을 최초로 제시한다. 순수 논리학에 대해서 후설의 간략한 소개를 살펴보자. 『서설』을 탈고한 이후 후설 자신이 계간지에 기고한 저서 소개(Selbstanzeige)에서 순수 논리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61)</sup>

순수 논리학은 이념적인 의미범주를 정초 세운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이념적인 법칙들과 이론들의 학적 체계이다. 즉, 모든 학문들의 공유물(Gemeingut)인 기초적 개념에 있어서, 순수 논리학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 공유물을 규정하는 바, 그것은 학문들을 객관적인 관점 일반에서 학문으로 만드는 것, 즉 이론의 통일성(Einheit)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순수 논리학은 이념적인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학문, 학문 일반에 대한 학문 혹은 이론의 이념의 이념적 구성요소들(Konstituentien)에 대한 학문이다.**<sup>62)</sup>(강조는 필자)

후설은 순수 논리학이 학문의 공유물을 이루는 기초적 개념들을 규정하는 학문이라고 일컫는데, 순수 논리학이 다루고 있는 논리적 법칙성은 모든 학문이 준수해야하는 규범적 규칙이기 때문이다. 순수 논리학이 학문의 가능성 자체를 다루고 있다는 후설의 주장은 이러한 규범성을 지키지 못하는 학문은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

가?

5. 학문을 수행하는 학자들은 자신의 학문의 토대를 스스로 정초할 수 있는가?

위의 질문들은 후설의 여러 저작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후설은 이 물음들을 일생 동안의 철학적 작업 속에서 끊임없이 해명하고자 했다. 첫 번째 질문이 중심적으로 제기되었던 저작이 『서설』이라면, 『이념들 I』 이후의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 전체는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엄밀학』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말년의 저작인 『형식논리학과 초월논리학』, 『데카르트적 성찰』(이하 『성찰』), 『위기』에서도 후설은 끊임없이 위에서 제기된 물음들을 해명하고자 한다.

<sup>61)</sup> E. Husserl, “Selbstanzeige” in *Vierteljahrsschrift für wissenschaftliche Philosophie*, 24, 1900, pp. 511-512, Hua XVIII, pp. 261-262 재수록.

<sup>62)</sup> Hua XVIII, p. 262

순수 논리학은 한편으로는 다음의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경험과 동떨어진 대상을 인간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즉 논리적 대상이 경험적 대상이 아니라면 논리적 대상에 대한 파악이라는 경험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가? 후설이 『산수의 철학』에서 대결한 문제의 핵심은 논리적, 수학적 대상들의 파악이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일 것이라는 상식적 직관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논리적 대상, 수학적 대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경험이라고 할 때, 그 경험이 경험하는 대상들은 비경험적 - 이념적 대상 - 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념적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따라서 논리학의 성립근거를 뒷받침하는 고유한 인식론의 해명을 요구한다. 논리학이 성립할 수 있는 인식론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나 논리학자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다. 후설은 이를 “수학자들이 수행하려고 하지도, 수행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63)</sup>

### 3.2. 학문에 관한 후설의 입장

#### 3.2.1 개별학문의 불완전성

학문은 어떻게 해서 학문이 되며, 또한 어떻게 해서 학문은 학문 아닌 것과 구분이 되는가? 이러한 물음이 제기되는 것은 학문이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무엇이고, 그러한 조건을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후설에 따르면 모든 개별 학문의 이론적 불완전성은 우선 그 학문을 수행하는 학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예컨대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거나 평가할 때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칙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조화롭

---

<sup>63)</sup> Ibid., p. 256

게 형성된 능력으로서의 내적인 활력을 따르며, 판단에 있어서는 예술가적 분별과 느낌을 따른다.<sup>64)</sup> 이러한 상황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작업을 관찰해보면 유사한 것으로 드러난다.

수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천문학자 스스로는, 비록 획득한 성과가 그들과 다른 이들에게 합리적인 신념이라는 힘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학문적 작업수행의 실행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의 최종적 근거의 통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언제나 해명되어야만 하는 자신의 추론의 최종적 전제들의 증명과 자신의 도구들이 의존하는 원리들의 설득력을 요청할 수 없다. **이러한 것에 모든 학문들의 불충분한 상태가(unvollkommene Zustand aller Wissenschaften) 관련되어 있다.**<sup>65)</sup>(강조는 필자)

즉 수학자나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고 그 작업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학문 활동 자체는 학문의 최종적인 근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학자들의 학문 활동 자체는 삼단논법이나, 특정한 학문의 방법론이 기초하고 있는 원칙들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실질적인 내용에 한정되기 때문이다.<sup>66)</sup> 실제 학문을 수행하는 학자들이 삼단논법의 정당성이나, 자신의 학문적 도구에 대한 검토 없이도 학문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후설은 “모든 학문들의 불충분한 상태가 관련되어 있다.”<sup>67)</sup>고 설명한다.

---

64) Ibid., p. 25

65) Ibid., pp. 25-26

66) Ibid., pp. 25-26, 실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최종적인 근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아니며, 그걸 수도 없다는 것을 이후 후설은 후기 저작인 『위기』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허수의 지위에 대한 완전한 해명이 없이도, 허수를 이용한 수학적 연구자체는 수학자들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수행된다는 사례를 떠올려보자.

67) Ibid., p. 26

후설의 지적을 실제의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 학문을 기초에 놓인 모든 이론적 근거들을 가장 최종적인 토대에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고 그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실천적 주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sup>68)</sup>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론적 설명 없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듯이, 학자들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훈련된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현실적 사태이다. 후설은 이러한 현실적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sup>69)</sup> 오히려 후설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학문의 불충분성이 학문의 이념적인 차원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근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학문은 그 **이념상**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 자체의 정당성을 의심해야만 한다.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지식으로서 하나의 체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전제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검토 없이는 학문을 통한 지식의 확장도 사상누각에 기초를 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의 불완전성이 기초적 전제들에 대한 고찰의 불완전성에서 유래한다는 후설의 설명은 단순히 한 분야가 탐구하는 진리가 불완전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학문의 확장에 요구되는 명확성과 합리성의 결핍을 지적하는 것이다.<sup>70)</sup>

68) 하지만, 후설이 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세계로부터의 학문의 정초라는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후설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생활세계로부터의 조건들에 대한 앎을 상실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이를 근거로 근대 과학이 위기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69) 예를 들어 논리학에 대한 지식은 처음에는 논리학의 기본적인 공리들에서 출발하는 연역적 정당화의 학문이지만, 실제 학문에서 논리학이 사용될 때는 그 자체로 기술로서 간주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논리학의 증명된 정리들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사유의 절약이자, 사유의 경제적인 활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설이 『서설』에서 비판하는 사유의 경제학은 논리학의 본질을 훈련된 혹은 생물학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술로서 간주하는 마하와 베르나우스를 비판하는 것이다.

70) Ibid., p. 6 시공간이 펼쳐진 외부세계의 문제를 형이상학적 문제로 파악하는 후설은 『논리연구』에서는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후설은 『이념들 I』에서

후설은 개별 학문의 이념적 불완전성이 특정한 이념적 학문에 의해서 보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후설은 개별학문의 불완전성을 보충해줄 학문으로서 두 학문을 검토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서의 형이상학이다. 후설에 따르면, 모든 개별 과학의 아래에는 특정한 전제들이 놓여있는데, 예를 들어 시간과 공간이 펼쳐진 외부세계가 존재한다던가, 모든 것은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가 하는 것이 그러한 전제이다.<sup>71)</sup> 하지만 형이상학은 모든 개별학문에 대해서 충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없는데, 이는 실재하는 것들에 대한 학문들을 다룰 뿐, 실제 존재(reale Sein)와 비존재(Nichtsein)에 독립적인 수와 다양체와 같은 이념적 법칙의 순전한 담지자들을(bloße Träger rein idealer Bestimmungen) 다루는 학문들은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72)</sup> 따라서 학문을 자신의 고유한 분야로 다루며, 개별학문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학문이 요구되는데 이를 후설은 학문론 Wissenschaftslehre 이라고 부른다.

### 3.2.2. 객관적 학문의 인식 근거

학문들의 성립근거를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은 후설이 학문(Wissenschaft)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문은 우선 인간학적 통일체(anthropologische Einheit)<sup>73)</sup>, 즉 사유작용의

---

가장 확고하게 가정된 전제로서 세계의 일반정립을 판단증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판단증지는 『논리연구』에서 해명되지 못한 형이상학적 전제들에 대한 후설의 발전된 인식을 보여준다.

71) Hua XVIII, p. 27.

72) Ibid., p. 27

73) 학문을 인류학적(인간학적) 통일체로 바라보는 후설의 관점은 『위기』에서 학문의 기초를 생활세계에서부터 정초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의 맹아를 드러낸다. 이때 인류

통일체, 외적 실행에 특정하게 속하는 사유의 배치의 통일체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인간학적, 특히 심리학적으로 규정된 이러한 모든 통일체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러한 관심사는 오히려, 무엇이 학문을 학문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는 사유를 정돈하는 심리학적인 것이나 **일반적인 실제 연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객관적 혹은 이념적인 연관에 대한 것이다.** (강조는 필자)<sup>74)</sup>

학문은 인간의 지적 행위의 집적물로서 인간학적 통일체이다. 하지만, 학문의 학문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종적 특성이나, 심리학적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즉 그것은 어떤 특정한 지적 생명체에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독립적인 객관적이고, 이념적인 타당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sup>75)</sup> 후설에 따르면 이는 실재적 연관 *reale Zusammenhang* 이 아닌 객관적 혹은 이념적 연관에 관한 것이다.

후설은 학문을 “통일체”<sup>76)</sup>로 간주할 수 있게 만드는 객관적 연관 (*objective Zusammenhang*)을 두 측면에서 구분하는데, 1) 현실적 혹은 가능한 사유체험이 지향적으로 관련된 **사태들의 연관(Zusammenhang der Sachen)**과 2) 사태들의 통일성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것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인 **진리들의 연관(Zusammenhang der Wahrheiten)**이 그것이다.<sup>77)</sup> 이 두 연관은 서로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지며, 상호 분리할 수 없다.

---

학은 심리학과 함께, 실제 인간의 행하는 경험적인 학문들의 총체로서의 인류학이다. 인류학에 대한 후설의 언명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문헌은 1931년에 강의한 “현상학과 인류학”이라는 강의록이다. (Hua XXVII, p. 164)

74) Hua XVIII, p .230

75) 후설의 심리학주의 비판의 목적은 따라서 인간의 심적 상태에 의해서 객관적 진리가 정초될 수 없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진리는 인간의 심적상태에 의존적인 것이 아니다.

76) 프레게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독일어 *Einheit*는 단위, 통일체, 통일성, 단일성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와 관련되어서는 단위로, 그 외의 경우는 통일체로 번역한다. 『산수의 기초』, §.39

77) Hua XVIII,, pp. 230-231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태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사태들의 연관과 진리들의 연관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앎은 바로 사태들의 연관과 진리들의 연관이 일치할 때에 생겨난다. 이때 진리들의 연관을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합법칙성이다.

후설은 『서설』의 6절 ‘학문론으로서의 논리학의 가능성과 정당화’에서 학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학문(Wissenschaft)은 이름 그대로 지식(Wissen)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에서 진리(Wahrheit)를 소유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급하는 지식에서 우리는 진리를 정당한 판단의 대상으로서 소유한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학문이 성립할 수 없다. 후설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학문의 성립 조건으로 제시한다.

- 1) 학문이 학문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논리적인 법칙이 존재해야 한다. 즉 논리적 법칙을 따르지 않는 학문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다.
- 2) 개별학문에 개별적인 논리적 법칙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개별적 논리적 법칙들은 가장 근본적인 논리적 법칙에서 파생되어야만 한다.
- 3) 가장 근본적인 논리적 법칙은 그 자체로 연역적이며, 선험적인 학문으로서 형식논리학의 외연과 동일하다.

학문은 지식의 체계이다. 그러나 단지 개별적인 지식들의 축적이 학문이 될 수는 없다. 체계(system)라는 용어는 특정한 개별적 지식들을 엮는 질서와 법칙이 있음을 암시한다. 학문의 대상이 되는 지식과 비학문적 지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 바꿔 말하자면, 어



떠한 지식이 학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그것을 일상적 경험으로 혹은 학문적 지식의 근거가 되는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는 일상적 경험에서는 어둠이 물러가고, 낮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일한 해가 지구가 둥글고, 자전하고 있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학문적 지식의 한 증거로서 경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경험의 감각적인 내용이 아니라, 감각적 내용을 지각하면서 파악하는 이성의 체계가 학문적 지식과 비학문적 지식을 나누는 것은 아닌가?

학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떠한 학문들, 예컨대 기하학과 같은 학문은 그것이 최초로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학문으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어떠한 학문들은 당대에는 최첨단에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나가버린 유행이자, 한갓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간주된다. 그렇게 점성술은 천문학이라는 학문에 자리를 내주고 신문 한 켠에 자리를 잡았으며, 연금술은 화학에 학문의 자리를 내주고 잊혀졌다. 점성술과 연금술은 나름대로의 지식들의 체계가 아니었는가? 그 당시에는 점성술과 연금술은 그 나름의 지식들의 합리적 체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학문이 지식의 체계라는 정의는 아직 충분치 못하다. 여기에 지식의 체계로서의 학문은 검증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여보자. 이제 학문은 검증된 지식의 체계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지식을 검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검증하는 도구와 기준이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 실증과학의 발전은 검증하는 도구와 기준의 발전 그 자체라고 간주해도 과하지 않다. 여기에서 도구와 기준은 물리적인 사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현미경은 세균을 보이게 하는 도구이며, 따라서 세균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개별적 학문들은 자신만

의 도구와 기준을 지니고 있다. 이론물리학은 수학을 도구로 삼고, 관찰 데이터의 이론 부합성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검증여부를 확인받는다. 역사학은 가설적 설명을 뒷받침 하는 유물과 문헌을 도구로 삼아서, 합리적 추론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검증된다.

후설에 따르면 진리의 영역은 무질서한 혼돈 상태가 아니라,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학문의 성립조건에 따르면 진리의 연구는 따라서 반드시 체계적이어야 하며, 이때 타당성의 연쇄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질서에 의한 규칙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학에서 우리는 이러한 규칙에 입각한 타당한 추론을 발견할 수 있다. 주어진 지식의 부분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타당하게 추론하는 논증들은, 다른 어떠한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독립된 형식을 지녀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단지 연역적 학문에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모든 학문에 타당한 형식이어야 한다. 만일 학문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논리적 형식이 특정한 학문에 종속된다면, 우리는 각각의 학문마다 그 학문에만 타당성을 지니는 개별적인 논리학만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3. 학문론의 필요성

『논리학과 인식이론』<sup>78)</sup>에서 후설은 『서설』에서 제기했던 순수 논리학을 더 명료하게 설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 논리학으로서 해명할 수 없는 학문의 정초의 문제를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다.

---

<sup>78)</sup> 후설의 1906/7년 강의록을 기초로 한 『논리학과 인식이론』의 영역자인 C. Hill은 역자 서문에서 이 책이 『논리연구』(1900-1)와 『이념들 I』(1913) 사이의 발전, 즉 현상학의 기원에 대해서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E. Husserl, *Introduction to Logic and Theory of Knowledge: Lectures 1906/07*, Springer, 2008, p. xi

학문은 그러한 것으로서 학문의 일반적 본질을 다룰 수 있어야만 하며, 따라서 만일 그것이 학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따라서 모든 실재적, 가능적 학문을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전체를 가르쳐준다. 이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학문론Wissehschaftslehre**을 지녀야만 한다. 학문론은 **그 자체로eo ipso 그러한 것에 대한 논리적인 학문이다.**

(중략) 하지만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명백하다. 즉 논리학의 개념은 확실하게 **학문 일반에 대한 학문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올바르게 이해된다. 이러한 동일화는 오직 사소하고 준비된 자기-확증적 가정을 만들 뿐인데, 즉 학문의 외부에서는 논리적인 것이 학문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교되는 어떤 특수한 형식들도 제시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학문에서 논리적인 것은 실재적이든 가능적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자신 안에 모든 논리적인 것 일반을 포함한다.<sup>79)</sup>

위의 인용문에서 후설은 학문론도 그 자체로(eo ipso)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해야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학문론은 모든 논리적인 것들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다. 후설에 따르면, 논리적인 것은 학문 안으로 모두 포섭된다. 이러한 후설의 주장은 학문 이전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판단과 개념화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 판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설은 선학문적 지식에서도 논리적인 것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후설은 선학문적 개념화와 판단이 자연적 상태의 인간에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판단과 추론은 단지 우연히 일어나고 짧게 지속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실제의 학문적 사유과정에 속하는 진정한 학문은 이러한 낮은 사유방식을 배제하는데, 학문의 통일성에 진입하기 위한 사유는 논리적 작용과(logische Funktion) 논리적 성격을 지녀야하기 때문이다.<sup>80)</sup> 그렇다면 학문의 통일성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

<sup>79)</sup> Hua XXIV pp. 5-6

후설에 따르면 학문의 통일성은 건축학적 통일체이다. 명제는 다른 명제와 연결되며, 논증과 논증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결된다.<sup>80)</sup> 후설은 단순히 문장들의 나열이 학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학문을 이루는 문장들은 그 안에 내적인 연관을 지녀야 한다. 이 내적 연관은 논리학적 합법칙성에 지배를 받는 논증의 연쇄를 통해서 문장들 사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장들의 연쇄가 단순한 선학문적 지식의 불완전하고, 낮은 단계의 사유방식을 넘어서는 학문적 사유방식을 이룬다. 즉 학문을 지배하는 논리적 작용이 바로 학문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문론은 그 자체로 학문의 성립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논리적인 것 일반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요청된다.

### 3.4 소결론

우리는 후설의 순수 논리학이 『산수의 철학』에서의 심리주의적 입장에서 전회한 이후, 학문을 학문으로서 성립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성립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후설에 따르면, 순수 논리학은 학문 일반에 대한 학문이자, 이론의 구성요소에 대한 학문이다. 어떻게 일개 논리학이 이러한 역할을 떠맡을 수 있는가? 그것은 순수 논리학이 학문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단순한 선학문적 불완전성을 통해서 축적될 수 없다. 그것이 학문적 지식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학문이 학문으로 성립해야하는 조건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후설에 따르면 그것은 학문의 구성요소들, 즉 학문을 이루는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연관에 있다. 학문을 구성하는 문장들 사이의 연

---

<sup>80)</sup> Ibid, p. 5

<sup>81)</sup> Ibid, p. 13

관은 논리적 법칙에 따라 타당한 연관을 지녀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낮은 단계의 사유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후설은 이러한 학문론이 그 자체로 하나의 학문으로서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 IV. 초월론적 현상학과 순수 논리학

4 장의 목표는 『서설』에서 제시된 학문론으로서의 순수 논리학 개념이 『서설』 이후의 초월론적 현상학의 구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서설』(1900)의 출간 이후 『이념들 I』(1913)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는 학문에 대한 후설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 후설은 『현상학의 이념』이라는 다섯 개의 강의에서, 인식론적 해명이 학문 이론과 학문에 대한 해명에 앞서 해명되어야 하는 작업임을 밝히고 있다. 이때 후설이 말하는 인식론적 해명은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에 나타나는 것 자체를(나타남) 해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식된 대상들의 대상성 자체를(나타난 것)을 해명하는 학문인 현상학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엄밀한 학문으로서 철학이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설은 1911년 『로고스』 지(誌)에 발표한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하 「엄밀학」)<sup>82)</sup>에서 철학이 엄밀한 strenge 학문의 이념을 따라야 하며, 이는 다른 모든 학문들을 정초하는 근본적인 학문으로서의 전통적 지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다른 학문을 정초하는 근본적인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다른 여타의 학문에 의해서 정초될 수 없으며 정초의 토대를 자신의 학문 내에서 찾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엄밀학」 이후 2년 뒤에 발간된 『이념들 I』에서 후설은 초월론적 현상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앞의 근거가 되는 확고한 인식은 무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무전제는 무로부터의 앎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

<sup>82)</sup> E. Husserl,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Logos* I, pp. 289-341, 1911, (Hua XXV, pp. 3-62, 재수록)

다. 후설이 주장하는 것은 인식의 근거는 더 이상 그 배후를 찾을 수 없는 최종적 근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설은 이러한 최종적 근거가 ‘모든 인식의 권리 원천’인 명증적인 직관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서설』이후 진행된 후설의 입장 변화를 요약하자면, 학문에 대한 해명은 그에 앞선 인식론적 해명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인식론적 해명을 진행하는 학문은 동시에 자신의 학문 안에서 자신의 토대를 찾아야 하는 학문으로서의 엄밀학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서설』 이후 변경된 학문에 대한 후설의 입장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제기할 수 있다.

『이념들 I』에 등장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은 엄밀한 학문으로서 철학으로서 성립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학문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순수 논리학보다 더 근본적인 학문인가?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드러나는 인식론적 우선성에 대한 해명의 철저함은 현상학에 요구되는 무전제성을 만족하는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서설』의 순수 논리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의 입장에서조차 여전히 본질학이자 학문에 대한 학문인 학문론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가?

엄밀한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순수 논리학이 자신의 학문 자체로부터 자신의 성립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순수 논리학은 더 이상 다른 학문들의 정초 토대를 제공하는 토대 학문의 성격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 논리학도 결국에는 더 근본적인 또 다른 학문으로부터 정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월론적 현상학이 전개된 『이념들 I』에서 후설이 밝히고 있는 순수 논리학의 배제는 순수 논리학이 엄밀학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초월론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순수 논리학도 순수 의식에 있어서는 초재적인

것이며, 이러한 초재를 해명되어야 할 전제로서 간주하는 현상학의 입장에서 순수논리학은 자신의 전제를 여전히 해명해야만 하는 엄밀하지 못한 학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4.1. 학문이론에 앞서는 인식론적 해명의 우선성

『논리연구』 2 권에서 후설은 순수 논리학과 순수 현상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순수 현상학은 중립적 연구의 영역을 드러내는데, 그곳에서 상이한 학문들이 자신의 뿌리를 지닌다. 한편으로 순수 현상학은 경험적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의 준비를 취한다. 순수 현상학은(특수하게 사유와 인식의 현상학으로서) 심리학에서 발생적 해명과 경험-법칙의 연관을 따르는 탐구가 발견되어야만 하는 표상 체험, 판단체험, 인식 체험을 분석하고 묘사한다. 다른 한편 현상학은 그로부터 순수 논리학의 근본개념과 이념적 법칙이 “생겨나는” “원천”을 해명하고, 순수 논리학의 인식비판적 이해에 필수적인 “명석성과 판명성”을 순수 논리학에 제공하기 위해서 다시 소급해야만 한다.<sup>83)</sup>

순수 논리학은 학문을 학문으로 성립하게 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순수 논리학만이 학문을 학문으로 성립하게 하는 필요조건인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순수 논리학 자체는 자신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들과 법칙들이 어떻게 인식되는 가를 밝힐 수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순수 논리학의 근본개념과 이념적 법칙들이 생겨나는 원천에 대해서 후설은 순수 현상학이라는 중립적 연구영역이 필요함을 가정하는데, 이 순수 현상학은 여타의 학문들이 자신의 뿌리를 지니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순

---

<sup>83)</sup> Hua XIX/1, pp. 6-7. 여기서는 초판(1901)을 기준으로 번역.



수 논리학의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논리연구』에서는 순수 현상학과 순수 논리학이라는 두 학문 중 어떤 학문이 우선하는 학문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논리연구』에서 후설은 아직까지 두 학문의 정확한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4.1.1. 『현상학의 이념』에서 제시된 인식론적 해명의 우선성

1907년 강의록을 편집한 『현상학의 이념』에서 후설은 학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명은 인식론적 해명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문을 이루고 있는 지식에 대한 올바른 해명은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인식론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이러한 인식론적 해명을 수행하는 학문 자체가 여타의 학문 이론들에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문 이론의 해명과 모든 학문의 해명이 은연중에 이런 방식 위에 있는 것이다. [...] 인식 비판은 개별 과학에 대한 비판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개별 과학을 형이상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sup>84)</sup>

후설은 『현상학의 이념』에서 자연적 학문과 철학적 학문을 구분하고 있는데, 자연적 학문을 성립하게 하는 자연적 정신 태도는 아직 인식 비판에 대한 관심을 지니지 않고 있다.<sup>85)</sup> 이에 반해 철학적 학문을 이루는 철학적 사유 태도는 인식 가능성 일반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sup>86)</sup> 후설

---

<sup>84)</sup> Hua II, pp. 13-14.

<sup>85)</sup> Ibid., p. 17

<sup>86)</sup> Ibid., p. 18

에 따르면 심리학주의적 논리학의 귀결이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인 것처럼, 자연적 학문이 인식 자체를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일종의 모순이 발생한다. 자연적 학문은 자신의 학문적 대상을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간주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체험으로서의 인식 자체와 인식된 대상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설에 따르면 인식은 일종의 체험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 속에서 인식된 대상은 인식 주체의 주관적 대립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해야한다.

#### 4.1.2. 제일철학으로서 보편학의 이념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문론으로서의 순수 논리학에 대한 후설의 구상은 제일철학(Prima Philosophia)과 보편수학(Mathesis Universalis)이라는 전통적인 철학적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후설이 형이상학적 학문으로서의 제일 철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후설은 당대의 수학적 발견에서 비롯한 연역적이고 보편적인 형식이론으로서의 다양체론을 학문론의 이념으로 삼는다. 이는 수학을 학문의 이상으로 삼으며, 수학적 방법론을 학문의 방법론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던 라이프니츠와 데카르트의 보편수학의 이념과도 구분된다. 오히려 후설이 이후 『위기』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학문의 수학화는 학문을 정밀학으로 만드는 것이자, 학문을 삶과 유리된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적된다.

후설은 말년의 저작인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데카르트가 제시했던 학문의 이상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데카르트 자신은 하나의 학문이상, 즉 기하학 또는 수학적 자연과학의 이상을 미리 갖고 있었다. 그 이상은 하나의 숙명적 편견으로서 수세기 동안 철학을

규정했으며, 비판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데카르트의 『제1철학에 관한 성찰』 자체까지도 규정했다. 데카르에게는 보편적 학문이 연역적 체계를 갖는다는 것, 그래서 그 체계의 전체 구조는 연역을 정초하는 공리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자명한 일이었다.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자아와 이 자아에 타고난 공리적 원리들이 절대적으로 그 자체로 확실하다는 공리가, 마치 기하학에서 기하학적 공리가 담당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보편학에 관해 담당하고 있다. 다만 보편학에 있어서 공리적 기초는 기하학의 기초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기하학의 기초를 궁극적으로 정초하는 데 함께 작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우리를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출발하는 자로서 어떠한 규범적 학문의 이상도 타당한 것으로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 자신이 그 이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한에서만, 우리는 그 이상을 가질 수 있다.<sup>87)</sup>**

후설과 데카르트 모두 학문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후설이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지점은 데카르트가 보편적 학문의 원리로 내세운 연역적 체계 그 자체도 하나의 전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후설은 데카르트의 제일 철학의 숨겨진 전제로서 연역적 체계 자체가 비판적으로 고찰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후설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기하학 또는 수학적 자연과학을 이상을 미리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상 자체는 비판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데카르트의 제일 철학에 대한 성찰을 규정한다. 따라서 후설에게 데카르트의 제일 철학은 보편학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그것이 보편학이라면, 그 보편적 학문 자체의 성립근거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지닌 그 어떤 규범들 혹은 진정한 학문 그 자체가 틀림없이 고유하다고 추정되는 자명한 양식을 미리 확실한 것으로 간주

---

87) 『데카르트적 성찰』 §.3, 강조는 필자

할 수 없으며 그것을 전제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의 논리학 전체를, 이 논리학조차도 모든 학문의 전복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이론(Wissenschaftstheorie)으로 전제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sup>88)</sup>

후설이 지적하듯, 이제 논리학조차도 하나의 숨겨진 전제로서 간주된다. 학문의 전복이라는 새롭고 더 철저한 목표에서 논리학은 마찬가지로 전복되어야 하는 불확실한 학문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연구와 확정으로 괴로움을 당하는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러한 일은 여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명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일반적 학문론이나 논리학에 속한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자명성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데카르트에 대립해서 말한 것, 즉 미리 주어진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논리학 역시 보편적인 전복을 통해 타당성 밖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철학함에 있어 이루어진 모든 것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통적 논리학과 같은 종류의 진정한 학문이 나중에 생길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 지금으로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sup>89)</sup>

후설은 데카르트의 제일철학뿐만 아니라, 자신이 『서설』에서 주장한 논리학과 학문론마저도 그 타당성이 의심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설에 따르면 학문의 발생적 순서에서 논리학은 아직 해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엄밀한 학문의 성립 이후에나 해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엄밀한 학문이 그 자체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를 해명해야만 한다.

---

<sup>88)</sup> Ibid., §. 3

<sup>89)</sup> Ibid., §. 5

## 4.2.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의 이념

후설은 철학이 엄밀학 학문이라는 이념, 즉 “개념상 확고하게 경계 설정되고 충분히 그 의의가 밝혀진 문제들, 방법 및 이론”<sup>90)</sup>을 갖춘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엄밀학 학문으로서의 후설의 구상은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학문들을 정초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제일철학을 복구하려하는 시도였다. 『엄밀학』에서 후설은 “철학이 그 최초의 출발 이래로 엄밀한 학이 되고자 하는 요구를 제기했”으며, 이는 철학을 “최고의 이론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며, 윤리적-종교적 관점에서도 순수한 이성 규범에 의해 규정된 삶을 가능케 해주는 학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91)</sup> 후설의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배경은 근대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해서 철학이 이전의 보편적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하나의 개별학문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수학적 분야들과 함께 근대적 학문이 정초되고 있다는 상황은 철학을 단순한 개별 학문으로 전락시키고, 각자의 학문들에 대한 궁극적 정초에 대한 해명을 무시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후설에 따르면, 이는 단지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 뿐만이 아니라,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바, 엄밀학의 일차적 목표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왜 엄밀한 학문으로서 성립하지 못하는가를 밝히는 것에서 출발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설』에서 후설은 순수 논리학을 모든 가능한 학문들의 학문으로서, 따라서 학문의 경계를 설정하는 학문인 학문론

---

90) Hua XXV. p. 8

91) Ibid. p. 3

으로서 간주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근본 학문으로서의 순수 논리학의 지위가 초월론적 현상학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엄밀학』에서 후설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일반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자신의 방법론 자체를 반성하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엄밀한 학문으로의 요구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엄밀학의 요구에서 후설은 연역적인 형식이론으로서 순수 논리학을 학문의 엄밀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후설은 연역적 학문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수학을 방법론적 모델로 삼고 있는 경험과학의 수학화라는 경향을 비판한다. 경험과학의 수학화는 하나의 형이상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즉 자연에서 관찰되어 정립된 법칙과 수학의 법칙이 상응한다는 전제가 그것이다. 이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근대 과학의 숨어있는 전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궁극적인 원천이 해명되지 않은 형이상학적 전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sup>92)</sup>

후설은 「엄밀학」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근대의 가장 감명깊은 과학인 수학적-물리적 과학들에 있어서 겉으로는 이러한 과학들의 대부분의 작업이 간접적 방법들에 따라 그 결과로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 방법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의 가치를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철학이 자신의 최종적 근원으로 돌아가는 한, 철학의 학문적 작업이 직접적인 직관의 영역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철학의 본질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가 성취해야 할 가장 위대한 첫걸음은 올바른 의미에서 철학적 직관을 갖고서 현상학적 본질 파악의 무한한 작업 영역을 열고, 간접적으로 기호화하거나 수학화하는 어떠한 방법들도 사용하지 않고, 또 추론과 논증의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가장 엄밀하고 모든 장르의 철학에 대해 결정적인 풍부한 인식을 획득하는 학문의 길을 여는 것임을

---

<sup>92)</sup> Ibid. p. 3

인식하는 것이다.<sup>93)</sup>

후설에 따르면 철학의 학문적 작업은 본질적으로 직관의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직관의 영역은 기호화와 수학적화와 같은 간접적 방법이나, 추론과 논증이라는 일종의 논리적 알고리즘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 4.3. 초월론적 현상학과 순수 논리학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순수 논리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제기한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보자. 『서설』에서 후설은 순수 논리학을 학문의 토대를 제시하는 학문이자, 모든 학문이 규범으로 삼아야 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순수 논리학의 학문 정초적 성격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상적인 것의 초재. 보편 수학으로서의 순수논리학의 배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이념들 1』의 59절<sup>94)</sup>에서 후설은 순수 논리학이 초월론적 환원에 앞서서 배제(Ausschaltung)될 대상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배제란 무엇인가? 현상학적 환원의 과정에서 우리는 시공간적 연장을 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우리의 외부세계가 존립하고 있음을 판단중지 한다. 이러한 판단중지는 관념론과 실재론적인 전통적 입장을 모두 유보하는 것이자, 순수 의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

<sup>93)</sup> Ibid, pp. 61-62

<sup>94)</sup> 59절은 2부 4장 “현상학적 환원들”에 속해있다.

자연의 배제는 우리에게 초월론적 순수 의식 일반으로 시선전환을 가능케 해주는 방법론적 수단이었다. (중략)..이제 반대로 순수 의식을 탐구할 목적에서 도 대체 무엇이 배제되고 남아야만 하는지, 또 필연적으로 배제가 자연적 영역에만 해당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한층 더 유익할 것이다.<sup>95)</sup>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을 판단중지한 이후에 우리에게 판단의 대상으로서 남는 것은 더 이상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세계가 아니다. 자연적 태도에서 전제되어 있는 세계에 대한 초월론적 판단중지를 통해서, 후설이 지적하듯, 순수 의식 일반으로 시선전환이 가능한 것은,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일부로서가 아니라 이제 세계와 세계의 대상들을 구성하는 초월론적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 논리학은 초월론적 판단중지와 함께, 순수 의식에 드러나지만, 여전히 순수 의식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언급된다.<sup>96)</sup> 순수 의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다양한 대상들을 배제함을 통해서 후설은 현상학을 하나의 형상학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순수 논리학의 배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후설은 처음에는 순수 논리학에 대한 배제에 회의적인 태도를 내비친다. 순수 논리학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up>97)</sup>

1. 모든 학문에는 그 학문이 기초하는 본질 인식의 장소로서 형상적 분야가 필요하다.

---

<sup>95)</sup> Hua III/1, p. 122

<sup>96)</sup> 후설은 배제의 대상으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56절), 순수 자아(57절), 신의 초재(58절), 순수 논리학(59), 내용적-형상적 분과(60절)를 제시한다.

<sup>97)</sup> 『이념들 1』, § 59. 후설은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판단중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순수 의식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들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세계를 판단중지한 이후의 배제의 대상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실재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를 괄호에 넣은 이후에도 순수 의식에 여전히 남아있는 잔여물이다.



2. 그러한 형상적 분야는 형식논리학과 형식적 존재론이다. 왜냐하면, 탐구의 대상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대상 일반에 대해서도 타당해야만 하며, 형식 논리학과 형식적 존재론은 대상 일반, 즉 가장 넓은 범위의 대상들에 대해 그 타당성을 다루기 때문이다.

3. 순수 의식을 대상으로 다루는 한에서 논리적으로는 순수 의식도 대상 일반에 포함되며 따라서 형식 논리학과 형식적 존재론은 순수 의식에서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후설은 곧바로, **특정한 전체**가 주어진다면, 형식논리학과 형식적 수학 일반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4. **순수의식에 대한 탐구가 순수 직관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이외에 어떤 임무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체가 된다**면 현상학은 순수 직관 속에서 순수 기술적 deskriptiv 으로 초월론적 순수 의식의 장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성립한다.

5. 이러한 기술적 학문에 수학적인 연역적 학문은 탐구의 도구로 기능할 수 없으며

6. 따라서 기술적 현상학은 모든 분과학문에 대해 독립적인 학문이다.

1, 2, 3의 입장은 『서설』에서 후설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후설은 『서설』에서 학문을 정초된 타당성의 전체 체계로서의 지식의 통일체로 파악하였다. 이때 진리의 영역은 무질서한 혼돈 상태가 아니라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일되어야 하며, 따라서 진리의 제시는 반드시 체계적이어야 하며, 타당성의 연쇄는 우연적으로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법칙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지배되어야만 한다.

후설이 순수 의식에서 연역적 학문인 형식적 논리학과 형식적 존재론을 배제할 수 없으리라고 추측한 이유는 순수 의식이 하나의 학문적 대상으로서 간주되는 한에서는 대상 일반에 대한 논리적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상으로서의 순수 의식은 우연적이고, 임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다.

그러나 후설은 순수 의식에 대한 탐구가 기술적 분석에 머무른다면(4), 형식논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식에 대한 기술적 *deskriptiv* 분석을 수행할 때, 수학적 분과들의 이론 형식과 간접적 정리들이 쓸모없기 때문이다. 즉 순수 의식에 대한 탐구를 체험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간주할 때, 우리는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논리적 연산이나 정리들을 사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술적 분석은 연역적 논리학의 내용에 의존하지 않는다.

4,5,6의 논의를 정리하면, 순수 의식은 기술적인 분석을 사용하는 한에서 형식 논리학과 같은 연역적 규범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그런 한에서만 순수 의식에서 순수 논리학이라는 형상적 학문이 배제될 수 있다.

#### 4.4. 소결론

순수 논리학은 학문을 학문으로 성립하게 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초월론적 현상학은 순수 논리학보다 더 근본적인 학문이다. 후설에 따르면, 순수 논리학조차도 우리의 의식에 대한 탐구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월론적 현상학이 전개된 『이념들 1』에서의 순수 논리학의 배제는

후설 철학에서 두 기초 학문인 순수 논리학과 초월론적 현상학의 위계를 보여준다. 순수 논리학은 다른 여타의 학문들의 조건으로서 기능하지만, 그 순수 논리학은 인식론적 해명의 철저함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초월론적 현상학에 의해서 정초되어야만 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이를 일종의 심리학주의로의 회귀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경험 학문인 심리학은 개별 학문을 정초하는 보편적인 형상적 분야를 요구하는데, 순수 의식에 대한 탐구는 이러한 형상적 분야를 배제한 뒤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설에 따르면, 순수 의식에 대한 탐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며, 이때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논리학적 정리나 분석을 기술적 분석은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초월론적 현상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된 이후에는, 그것의 학문적 조건도 순수 논리학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V. 결론

『논리연구』는 발간 당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 그 중 가장 널리 퍼져있는 오해는 『논리연구』의 1 권인 『서설』과 1년 뒤에 출간된 2 권에 서의 후설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1 권인 『서설』에서는 후설이 심리학주의를 비판하다가, 2 권에서는 다시 심리학주의로 회귀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오해의 일차적인 원인은 2 권에서 후설이 지향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심리학’이라는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sup>98)</sup>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후설이 비판하는 심리학주의와 기술적 심리학이 본질적으로 다른 학문임을 파악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다.

더 근본적인 오해의 원인은 『서설』에서의 심리학주의 비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간과한 데에 있다. 『서설』에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논박을 수행한 심리학주의에 대한 비판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순수 논리학이 가능한가를 묻는 작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때 순수 논리학은 경험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가져오지 않는 선험적인 의미에서 순수한 학문이다. 그러나 순수 논리학은 단순히 선험적 논리학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은 아니다. 『서설』에서의 순수 논리학이 도입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학문의 학문성을 보장하는 학문론으로서 성립하는 가를 보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논리연구』의 1 권인 『서설』과 2 권의 관계는 상호 보충적이다. 즉 『서설』이 학문론의 성립근거로서의 연역적 보편 수학의 이념을 지니고 있는 순수 논리학이 존재해야 함을 보인다(논리학과 학문론), 2 권에서는 개별적 연구들을 기술적 심리학의 방법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인식론이 다루는 인식의 내용을 경험주의적

---

<sup>98)</sup> 후설 자신도 이러한 용어상의 혼돈을 야기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리연구의 2판 서문을 참조.

인 관점이나, 표상주의적 관점이 아닌 지향성이라는 의식의 본질적 속성을 통해서 해명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이때 기술적 심리학적 해명은 학문을 실제 수행할 때, 우리의 인식의 출발점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인식론적 작업이다.

후설 현상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상학을 모든 학문의 존립근거를 제시하는 제일철학으로서 정립하는 것이었다. 제일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후설의 표현을 빌자면 “개념상 확고하게 경계지어졌으며, 충분히 의의가 밝혀진 문제들, 방법 및 이론”<sup>99)</sup>을 갖춘 엄밀학으로서 철학의 요구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현상학의 근본 동기를 학문의 정초토대를 제공하는 기초 학문의 해명이라고 할 때, 순수 논리학은 후설이 최초로 학문의 학문성을 대상으로 다루는 개념이다. 하지만, 순수 논리학 개념은 초월론적 현상학의 구도 속에서는 더 이상 학문에 관한 근본적 이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초월론적 현상학을 구성하는 기초적 개념으로- 예를 들어 형식적 존재론- 해소된다.

『서설』에서 학문에 대한 이론인 순수 논리학이 초월론적 현상학의 구도 안에서는 형식적 존재론으로 해소되었다면, 이는 한편으로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학문에 대한 이론은 순수 논리학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어야 함을 뜻한다. 후설은 현상학과 독립적인 하나의 개별적 학문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학 그 자체가 하나의 학문이론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수 논리학의 연역적 형식조차도 그 인식론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학문의 학문성을 정초하는 토대가 될 수 없으며, 엄밀한 학문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이념은 자신의 학문 안에서 스스로의 학문성을 정초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은 후설의 궁극적인 학문 이론이다.

---

<sup>99)</sup> Hua XXV, p. 8

스스로를 정초하는 학문으로서 현상학은 다른 여타의 학문들에게 의심할 수 없는 출발점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학문이론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는 『이념들 1』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식의 최종적 근거를 우리에게 주어진 직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후설은 순수 논리학도 초월론적 환원의 과정 속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엄밀한 학문이라는 이념, 즉 자신의 근거를 해명하는 자기 충족적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순수 논리학은 자기 충족적 학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엄밀한 학문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후설은 인식의 모든 권리 원천을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직관에서 찾고 있는 바, 후설 철학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토대는 의식의 명증성이다.

세 번째, 초월론적 현상학이 엄밀한 학문이라는 후설의 입장을 검토해보면, 순수 논리학은 다음의 이유로 배제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후설은 의식에 기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직관이 유지되는 한에서 순수 논리학의 배제가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초월론적 현상학으로의 발전 과정에서 순수 논리학은 학문의 필요조건을 해명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서 기능하지만, 순수 논리학은 그 자체로도 해명되어야 할 성격을 지니는 불완전한 학문이다. 순수 논리학적 연역의 명증성은 경험에서 주어지지만, 학문이 필요로 하는 순수 논리학의 연역적 성격은 경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원리상 선험적인 것이며, 따라서 엄밀학의 토대로서의 자기 충족적 성격을 지니지 못한다. 하지만, 순수 논리학은 여전히 후설의 현상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형상적 학문의 하나로서 영역적 존재론의 본질을 이루

며, 다른 한편으로 본질직관과 순수 다양체론이라는 대상에 대한 일반 이론의 이념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1) 후설의 저작

#### a. 후설 전집(Husserliana)

Husserl, Edmund, Cartesianische Meditationen und Pariser Vorträge, Den Haag: Martinus Nijoff, 1950. (Hua I, 『데카르트적 성찰』)

\_\_\_\_\_,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Erstes Buch: Allgemeine Einführung in die reine Phänomenologie*, Den Haag: Martinus Nijoff, 1976. (Hua III/1, 『이념들 I』)

\_\_\_\_\_,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Eine Einleit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Philosophie*, Den Haag: Martinus Nijoff, 1954. (Hua IV, 『위기』)

\_\_\_\_\_, *Philosophie der Arithmetik. Mit ergänzenden Texten (1890-1901)*, Den Haag: Martinus Nijoff, 1970. (Hua XII, 『산수의 철학』)

\_\_\_\_\_, *Formale und transzendente Logik. Versuch einer Kritik der logischen Vernunft. Mit ergänzenden Texten*, Den Haag: Martinus Nijoff, 1974. (Hua XVII, 『형식 논리학과 초월 논리학』)

\_\_\_\_\_, *Logische Untersuchungen. Erster Band. Prolegomena*



*Zur reinen Logik*, Den Haag: Martinus Nijhoff, 1975. (Hua X VIII, 『논리연구 1 권 : 순수 논리학 서설』)

\_\_\_\_\_, *Logische Untersuchungen. Zweiter Band.*

*Untersuchungen zur Phänomenologie und Theorie der Erkenntnis. Erster Teil*, The Hague/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1984. (Hua X IX/1, 『논리연구 II /1: 현상학과 인식이론 연구』)

\_\_\_\_\_, *Logische Untersuchungen. Zweiter Band.*

*Untersuchungen zur Phänomenologie und Theorie der Erkenntnis. Zweiter Teil*, The Hague/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1984. (Hua X IX/2, 『논리연구 II /2: 현상학과 인식이론 연구』)

\_\_\_\_\_, *Aufsätze und Rezensionen (1890-1910). Mit ergänzenden Texten*, The Hague/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1979, (Hua X X II, 『강연과 논문』)

\_\_\_\_\_, *Einleitung in die Logik und Erkenntnistheorie.*

*Vorlesungen 1906/07*, The Hague/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1984, (Hua X X IV, 『논리학과 인식 이론』 )

\_\_\_\_\_, *Logik und allgemeine Wissenschaftstheorie. Vorlesungen 1917/18*,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6, (Hua X X X, 『논리학과 일반적 학문 이론』)

\_\_\_\_\_, *Untersuchungen zur Urteilstheorie. Texte aus dem Nachlass(1893-1918)*, Dordrecht: Springer, 2009, (Hua X L, 『판단론 연구』)

**b. 후설 전집 보충판(Husserliana - Materialienbände)**

Husserl, Edmund, *Logik. Vorlesung 1896, Band I*,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_\_\_\_\_, *Logik. Vorlesung 1902/03, Band II*,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_\_\_\_\_, *Alte und neue Logik. Vorlesung 1908/09, Band VI*,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

**c. 전집 외 후설 저작**

Husserl, Edmund, “Beiträge zur Theorie der Variationsrechnung”, Universität Wien, 1882.

\_\_\_\_\_, *Erfahrung und Urteil, Untersuchungen zur Genealogie der Logik*, ausgearbeitet und hrsg. von Ludwig Landgrebe, Prag: Academia Verlagsbuchhandlung, 1939.

**d. 후설 저작 번역본**

Husserl, Edmund, *Logical Investigations(Vol I & II)*, Trans. by J. N. Findla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0.

\_\_\_\_\_, *Introduction to the Logical Investigations, A Draft of a Preface to the Logical Investigations(1913)*, Trans, by Philip J. Bossert & Curtis H. Peters, The Hague: Maritinus Nijhoff, 1975.

\_\_\_\_\_, *The Shorter Logical Investigations*, Trans. by J. N.

Findlay, London/New York: Routledge, 2001.

\_\_\_\_\_, 『형식논리학과 선행논리학』, 이종훈 외 역, 나남,  
2010.

## 2) 사전

기다 겐 外, 『현상학사전』, 이신철 역, 도서출판 b, 2011.

Drummond, John J., *Historical dictionary of Husserl's philosophy*, Lanham,  
Md.: The Scarecrow Press, 2008.

Gander, Hans-Helmuth(ed.), *Husserl-Lexiko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10.

Moran, Dermot and Cohen, Joseph, *The Husserl Dictionary*, London/New  
York: Continuum, 2012.

Vetter, Helmuth(HRSG.), *Wörterbuch der phänomenologischen Begriffe*,  
Hamburg: Felix Miner, 2005.

## 3) 기타 참고문헌

박승억, 「후설의 學問理論에 대한 研究: 순수 다양체론을 통해 본 선행  
현상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_\_\_\_\_, 「후설 현상학에서 수학기초론 논의의 역할에 관하여」,  
『철학연구』 제 82 집, 2008, pp. 81-96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들·명제에 관하여』, 김진성 역, 이제이북스, 2008.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 『후설과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한길사, 2013.

- 정태창, 「후설의 심리주의 논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최대근, 「후설 순수 논리학의 명증성 개념 연구: 『논리연구 I』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하병학, 「오스카 베커의 현상학: 그의 수학철학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13 집, 1999, pp. 356-393
- \_\_\_\_\_, 「현대논리학적 단초들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니츠 논리학의 이해」, 『논리연구』 2 집, 1998, pp. 91-118
- 한정선, 「프레게의 “산수의 철학 비평”이 후설에게 미친 영향」,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4 집: 후설과 현대철학』, 서광사, 1990, pp. 99-120
- v. Atten, Mark, *Brouwer Meets Husserl: On the Phenomenology of Choice Sequences*, Dordrecht: Springer, 2007.
- Beyer, Christian, *Von Bolzano zu Husserl: Eine Untersuchung über den Ursprung der phänomenologischen Bedeutungslehr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6.
- Carins, Dorion, *Conversations with Husserl and Fink*, The Hague: Maritinus Nijhoff, 1976.
- Centrone, Stefania, *Logic and Philosophy of mathematics in the Early Husserl*, Dordrecht: Springer, 2010.
- Dahlstrom, Daniel O.(ed.), *Husserl's Logical investigation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
- Dummett, Michael, *Origins of Analytical Philosoph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Preface in *The Shorter Logical Investigations*, London/New York: Routledge, 2001, pp. xxi-xxiii

- Feist, Richard(ed.), *Husserl and the Sciences: Selected Perspectives*,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2004.
- Fiesette, Denis(ed.), *Husserl's Logical Investigations Reconsidered*,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
- Frege, Gottlob, *Die Grundlagen der Arithmetik: eine logisch-mathematische Untersuchung über den Begriff der Zahl*, Berslau: Verlag Von Wilhelm Koebner, 1884. [『산수의 기초』, 박준용·최원배 역, 아카넷, 2003.]
- \_\_\_\_\_, *Grundgesetze der Arithmetik, Band I.*, Jena: Verlag Hermann Pohle, 1893. [『산수의 근본법칙 I』, 김보현 역,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 \_\_\_\_\_, *The Frege Reader*, Micheal Beaney ed., Oxford, UK/ Cambridge, Mass.: Blackwell Publishing, 1997.
- Ha, Byung-Hak, *Das Verhältnis der Mathesis universalis zur Logik als Wissenschaftstheorie bei E. Husserl*,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GmbH, 1997.
- Haaparanta, Leila(ed.), *Mind, Meaning, Mathematics*, Dordrecht/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 Haddock, Guillermo E. R. et al. *The Other Husserl*, Axiomathes Vol 22. Issue 1. 2012.
- Hanna, Robert, “*Logical Cognition: Husserl's Prolegomena and the Truth in Psychologism*”,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53, no. 2, 1993.
- Hartimo, Mirja(ed.), *Phenomenology and Mathematics*, Dordrecht: Springer, 2010.

- Hill, Claire O. & Haddcock, Guillermo E. R., *Husserl or Frege?*, Chicago: Open Court, 2000.
- Hill, Claire O., *Word and Object in Husserl, Frege, and Russell: The Roots of Twentieth-Century Philosophy*,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2001.
- Hill, Claire O. & da Silva, Jairo José, *The Road Not Taken: On Husserl's Philosophy of Logic and Mathematics*, London: College Publications, 2013.
- Hopkins, Burt C.(ed.), *Husserl in Contemporary Context: Prospects and Projects for Phenomenology*,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 Ingarden, Roman. *On the Motives which led Husserl to Transcendental Idealism*, (Trans. by Arnór Hannibalsson from Polish the “O motywach, które doprowadziły Husserla do transcendentálnego idealizmu” in *Z badań nad filozofią współczesną*, Dziela Filozoficzne, 1963, pp. 550-622),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5.
-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PhB Bd.505, Hamburg: Felix meiner, 1998. [『순수이성비판』, 백중현 역, 아카넷, 2006.]
- Kern, Iso, *Husserl und Kant: Eine Untersuchung über Husserls Verhältnis zu Kant und zum Neukantianismus*,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4. [『후설과 칸트』, 배의용 역, 철학과 현실사, 2001.]
- Klein, Felix, *Vorlesungen über die Entwicklungen der Mathematik im 19. Jahrhundert*, New York: Chelsea Publishing, 1956. [『19세기

- 수학의 발전에 대한 강의』, 한경혜 역, 나남, 2012.]
- Körner, Stephan,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An Introductory Essay*,  
New York: Dover Publication, 1960. [『수학철학』, 최원배  
역, 나남, 2015.]
- Kusch, M., *Psychologism: A Case Study in the Sociology of Philosophical  
Knowledge*, London/New York: Routledge, 1995.
- Lampert, Jay, *Synthesis and Backward reference in Husserl's Logical  
investigations*,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 Lau, Kwok-ying & Drummond, John J.(ed.), *Husserl's Logical Investigations  
in the New Century: Western and Chinese Perspectives*,  
Dordrecht: Springer, 2007.
- Lee, Nam-In, *Edmund Husserls Phänomenologie der Instinkte*,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 Mach, Ernst, *Die Mechanik in ihrer Entwicklung: Historisch-Kritisch  
dargestellt*, Leipzig: F.A. Brockhaus, 1883. [『역학의 발달』,  
고인석 역, 한길사, 2014.]
- Mayer, Verena(HRSG.), *Logische Untersuchungen*, Berlin: Akademie Verlag,  
2008.
- McKenna, William R., *Husserl's "Introductions to Phenomenology"*, The  
Hague/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2.
- Mill, J. S., *A System of Logic*, London: John W. Parker, 1843.
- Mohanty, J. N.(ed.), *Readings on Edmund Husserl's Logical Investigations*,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7.
- Mohanty, J. N., *Husserl and Fre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1982.
- \_\_\_\_\_, *Logic, Truth and The Modalities: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Dordrecht/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 \_\_\_\_\_, *The Philosophy of Edmund Husserl: A Historical Development*,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_\_\_\_\_, *Edmund Husserl's Freiburg Years, 1916-1938*,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1.
- Seebohm, Thomas M. et tal, *Phenomenology and the Formal Science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 Smith, Barry & Smith, David W.(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usserl*,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Smith, David W., ““Pure” Logic, Ontology, and Phenomenology”, in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2003, N.224, pp. 133-156
- Spiegelberg, Herbert,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Martinus Nijhoff, The Hague, 1969. [『현상학적 운동 1』, 최경호·박인철 역, 이론과 실천, 1991. 『현상학적 운동 2』, 최경호 역, 이론과 실천, 1992.]
- Ströker, Elisabeth, *The Husserlian Foundations of Science*,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 Tieszen, Richard, *Mathematical Intuition*, Dordrecht/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9.
- \_\_\_\_\_, “Husserl’s Logic” in *Handbook of the History of Logic*



*Vol 3. The Rise of Modern Logic: From Leibniz to Frege*,  
Amsterdam/Boston/Heidelberg/London/New York/Oxford/Paris/San  
Diego/San Francisco/Singapore/Sydney/Tokyo: Elsevier, 2004. pp.  
207-321.

\_\_\_\_\_, *Phenomenology, Logic and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Tragesser, Robert S., *Husserl and Realism in Logic and Mathe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Willard, Dallas, *Logic and the Objectivity of Knowledge: A Study in  
Husserl's Early Philosophy*,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1984.

Zahavi, Dan & Stjernfelt, Frederik(ed.), *One Hundred Years of  
Phenomenology: Husserl's Logical Investigations Revisited*,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Zahavi, Dan, *Husserl's Phenomen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Abstract

# A Study on Husserl's Pure Logic

Kim, Hansaem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usserl criticized the logic which based on psychologism in *Prolegomena to Pure Logic*, the first volume of his *Logical investigations*. In Husserl's view, it is inevitable that psychologism falls into relativism and skepticism, and such logic cannot be established properly as logic by the nature of the discipline. Traditionally, logic has been considered a normative science by which all human thoughts must be guided. If science is an aggregation of human thoughts, it is clear that the thoughts of science must also be governed by logical laws. If the reasoning behind science goes beyond the logical law, such science can no longer be established as science by its nature. Thus, if the foundation of logic, a discipline that deals with normative laws of thought, is shaken by relativism and skepticism, it seems

clear that the foundation of other disciplines will not be secured. In this background, Husserl found that correct explanations of the nature of logic are indispensable to ensure that science is established as a science.

So where does the normativity of logic itself get its grounds? Husserl argues that all normative things are based on the preceding theoretical. If we apply this to logic, the normativity of logic can be said to be based on the theoretical nature of formal and deductive logic. Therefore, in order to clarify the normativity of logic, the theoretical character of formal and deductive logic must be explained first. Husserl refers to the theoretical logic that deals with the logical structure of purely ideal objects independent of experience as 'pure logic'.

The objects that pure logic deals with are ideal objects that are logical objects, not actual objects existing in space and time, and the logical validity derived from ideal objects has a universality that can be applied to all real obj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objects can be seen as a case in which logic laws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of ideal objects are applied. Thus, pure logic obtains the universality applicable to the subject in general, based on the universal validity of the logical laws of the objects it explores. This universality is the basis on which pure logic can be established as an academic discipline.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of an object, it must be identified as not violating logical validity, whether it is real or not. Knowledge comes from gras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s, and can not be established as knowledge in the first place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s violates logical validity. In this sense, logic is not only a discipline in itself, but also serves as a basic science that provides logical validity derived from the logical objects it deals with to other disciplines as a kind of law of thought. Therefore, pure logic as a basic science has the character of a

theory of science which provides the grounds for other disciplines(Wissenschaftslehre).

We can find that the concept of pure logic is no longer maintained in the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developed after Prolegomena to Pure Logic. This is because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which is a discipline requiring a thorough epistemological explanation, emerges as a discipline that provides the ultimate grounds for other studies. So what is the role of pure logic in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Husserl has already stated in the second volume of Logical Investigations that “epistemology can not be reduced to logic”. A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reveals, the ultimate source of right of perception to Husserl is direct intuition, and we can not find a basis for recognition that has a more certain right than this. The epistemological thoroughness of phenomenological reduction shows that the status of phenomenology as a discipline that does not require other premises is different from other disciplines.

Let's go back to the problem of pure logic. Which of the two basic sciences, pure logic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comes first? This problem requires the following clarification. If pure logic is the basis of the normativity of other sciences, i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is also a science that follows the law of thought of pure logic? Or, on the contrary, is pure logic a discipline that asks for the basis of its founding in epistemological thoroughness of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In *Ideen I*, Husserl argues that pure logic can be excluded from pure consciousness given a 'particular premise'. As far as pure consciousness is regarded as an object, pure consciousness itself is included in the object general, and therefore the law of formal logic and formal ontology, which is the study of the general, can not be excluded from pure consciousness. Husserl argues, however, that if certain premises are made, general formal

logic and formal mathematics can be put in 'parentheses'. In other words, if it is premised that the quest for pure consciousness does not have any task other than a descriptive analysis that can be solved in pure intuition, phenomenology can be established as a science that explores transcendental pure consciousness in a purely descriptive way and mathematical deductive science can no longer function as a tool of inquiry. Therefore, deductive logic as a figurative science can be excluded from pure consciousness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descriptive analysis of pure consciousness.

The pure logic presented in the *Prolegomena* can no longer function as normative and universal in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However, pure logic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Husserl'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The reason is because the formal ontology and pure theory of manifolds start from the idea of pure logic. Nevertheless, it seems clear that to Husserl the more universal science of essences is phenomenology as a strict academic discipline that can reflect on its foundation. In conclusion, we can see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role of pure logic in Husserl'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that the priority of epistemological rights in Husserl's philosophy precedes the universal normativity of pure logical discipline. And this is reaffirmed by the fact that Husserl has given the character of a new basic science to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Keywords: Husserl, Logical Investigations, basic discipline, Pure Logic, Wissenschaftslehre, Transcendental Phenomenology**